

2024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4 K리그 기술보고서



K LEAGUE



2024 K LEAGUE TECHNICAL REPORT

올 시즌 K리그는 2년 연속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리그의 꾸준한 성장세를 다시 한 번 입증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홈경기 관중 50만 명 돌파와 K리그2에서 새로운 현상을 만든 수원 원정 응원 열기는 K리그의 잠재력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순위 싸움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울산은 시즌 중반의 우여곡절을 딛고 K리그1에서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저력을 과시했고, K리그2에서는 안양이 오랜 도전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며 K리그1 승격이라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을 연출한 팀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원과 김천은 예상을 뒤엎고 시즌 초반부터 우승 경쟁에 합류하며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K리그2에서는 충남아산이 준우승을 차지하며 구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을 찾는 축구팬이 늘어나는 만큼, 경기에 대한 분석과 해설 역시 점차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연맹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리그의 경기 데이터와 전술·전략을 집대성한 종합 분석 보고서인 '2024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발간 하였습니다.

이번 테크니컬 리포트에서는 2024시즌의 주요 지표를 정리하고, 득점, 세트 플레이, 역습, 압박, 빌드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각 팀의 전술적 특징과 강점, 약점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주요 장면마다 자료 영상을 삽입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2024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헌신해주신 선수단,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K리그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K리그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축구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 K LEAGUE TECHNICAL REPORT'가 K리그를 더욱 흥미롭고 과학적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권 오 갑

CONTENTS

용어정리	BEPRO11 데이터 정의	02
TSG	2024 K리그 TSG(기술연구그룹)	03
01	2024 K LEAGUE OVERVIEW	04
	THE STORY OF K LEAGUE1 2024	06
	INTERVIEW K리그1 우승감독 김판곤	18
	INTERVIEW K리그2 우승감독 유병훈	20
	TEAM OF THE YEAR	22
02	TALKING POINTS	28
	TOPIC 1 풀백의 포지션 변경	30
	TOPIC 2 감독 교체 이후 성장세	31
	TOPIC 3 Back 3 & Back 4 트렌드	32
03	ANALYSIS	34
	GOAL SCORING 득점 분석	36
	SET PLAYS 세트 플레이 분석	40
	COUNTERATTACK 역습 분석	44
	PRESSING 압박 분석	48
	BUILD UP 빌드업 분석	52
	GOALKEEPING 골키퍼 분석	56
04	TEAM PROFILES	58
	K리그1	60
	K리그2	72

- xG(eXpected Goals) | 기대 득점.**

특정 슈트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값은 슈트 위치 및 각도, 연결된 패스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됨
- xGOT(eXpected Goals on Target) | 유효 슈트 내 기대 득점.**

유효 슈트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OT값은 xG값과 슈트 골문 안으로 향한 위치(goalmouth location)에 의해 결정되며 계산 과정에서 모든 슈트 중 유효 슈트만 포함됨
- xT(eXpected Threat) | 기대 위협.**

득점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공을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 공은 패스(pass), 드리블(dribble), 캐리(carry) 3가지 방법에 의해 전달될 수 있으며, 경기장을 구역별(21x18)로 나누어 각 구역에 해당하는 득점 가능성을 부여하고, 공의 전달이 마무리되는 구역에서 공의 전달이 시작되는 구역의 득점 가능성 값을 뺀 값으로 산출됨
- 유효 슈트 | 골대 안으로 향하는 슈트**
- 블락된 슈트 | 수비수한테 막혀 골라인을 지나가거나 도달하지 않는 슈트**
- 벗어난 슈트 | 골대를 맞거나 골라인으로 나간 슈트**
- 돌파 | 공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제치는 시도**
- 탈압박 | 공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압박을 벗어나 공 소유를 유지하는 행위**
- 드리블 | 공을 소유한 선수가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동하는 행위**
- 시퀀스 | 볼 소유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 시퀀스 | 연속적인 행위의 모음.**

시퀀스 시작은 곧 볼 점유의 시작이며 상대의 수비, 슈트, 볼 아웃 등 상황에 의해 종료됨
- 슈트 시퀀스 | 슈트로 이어진 시퀀스**
- 득점 시퀀스 | 득점으로 이어진 시퀀스**
- 패스 | 공을 가진 선수가 동료 선수에게 의도를 가지고 소유권을 전달하려는 시도**
- 키 패스 | 슈트로 연결된 마지막 패스**
- 공격 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하였을 때, 공격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 중원 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하였을 때, 중원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 수비 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하였을 때, 수비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 장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패스**
- 중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1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패스**
- 단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15미터 미만인 패스**
- 전진 패스 | 패스의 방향이 전방 6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 횡 패스 | 패스의 방향이 좌우 측면 12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 백 패스 | 패스의 방향이 후방 6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 크로스 |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한 횡적인 패스**
- PPDA(Passes Per Defensive Action) |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상대방 골라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수비 시도 행위당 상대방

- 공중 볼 경합 | 어깨보다 높은 위치의 공을 소유하기 위한 도전**
- 그라운드 경합 | 어깨보다 낮은 위치의 공을 소유하기 위한 도전**
- 루즈 볼 경합 |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공에 대한 도전**
- 태클 | 상대가 소유한 공을 빼앗으려는 시도**
- 차단 |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에게 태클을 시도하여 공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것**
- 인터셉트 | 상대의 패스, 크로스, 슈트의 경로를 수비하여 본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
- 블락 | 상대의 패스, 크로스, 슈트의 경로를 수비하여 공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것**
- 획득 |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공을 본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
- 클리어 | 수비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을 걷어내는 것**
- 볼 미스 | 공을 소유 중이거나, 소유하려고 할 때 실수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것**
- 캐칭 | 골키퍼가 슈트를 막아내면서 공을 소유한 것**
- 펀칭 | 골키퍼가 슈트를 막아내면서 공을 소유하지 못한 것**
- 공중볼 처리 |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어깨보다 높은 위협적인 공에 도전하는 것**
- 그라운드 처리 |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어깨보다 낮은 위협적인 공에 도전하는 것**

기술위원장 | 김호영

영상분석관 | 박준완

이규준	現 장안대 감독 前 KFA 기술위원 前 장훈고 감독	이평재	前 광양제철고 감독 前 전남드래곤즈 스카우트
정경구	現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 교수 現 대한풋살연맹 기술이사 現 KFA 강사	최문식	前 U23대표팀 수석코치 前 대전하나시티즌 감독 前 클란탄FC 감독
김대환	現 KFA 전임 지도자 前 U20 대표팀 GK코치 前 수원삼성 GK코치	최승범	前 KFA 전임강사 前 KFA TSG 위원 現 AFC TSG 위원
백영철	現 KFA 강사 前 서울이랜드FC 코치 前 현풍고 감독	현영민	前 울산현대 U18 감독 現 K리그 해설위원
이정수	前 수원FC 수석코치 前 호치민FC 코치 前 동국대 코치	정조국	前 제주유나이티드 수석코치 前 A대표팀 코치 現 전북현대 코치

01

2024 K LEAGUE OVERVIEW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K리그1에서는 울산이 궁극의 리그 3연패를 이룩하며 호랑이 왕조로 가는 기반을 닦았다. 강원은 2위에 오르며 클럽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영원한 강호일 듯했던 전북은 막판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아울러 생존왕이라고 불리던 인천은 끝내 다이렉트 강등 선고를 받았다. K리그2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았다. 안양은 창단 최초 승격을 이뤄내며 2025년을 K리그1에서 시작하게 됐다. 충남아산과 서울이랜드는 매서운 플레이로 시즌 내내 호평을 받았다. 2024시즌 K리그2의 난이도는 '역대 최고'였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팀이 K리그2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지 종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까다로운 시기를 지나서인지 각 팀별로 감독 교체가 유독 잦았다.

2024 K리그1 최종 순위							
순위	구단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점
01	울산	38	72	21	9	8	62
02	강원	38	64	19	7	12	62
03	김천	38	63	18	9	11	55
04	서울	38	58	16	10	12	55
05	수원FC	38	53	15	8	15	54
06	포항	38	53	14	11	13	53
07	제주	38	49	15	4	19	38
08	대전	38	48	12	12	14	43
09	광주	38	47	14	5	19	42
10	전북	38	42	10	12	16	49
11	대구	38	40	9	13	16	45
12	인천	38	39	9	12	17	38

2024 K리그2 최종 순위							
순위	구단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점
01	안양	36	63	18	9	9	51
02	충남아산	36	60	17	9	10	60
03	서울E	37	58	17	8	12	64
04	전남	38	57	16	11	11	63
05	부산	37	56	16	9	12	55
06	수원	36	56	15	11	10	46
07	김포	36	54	14	12	10	43
08	부천	36	49	12	13	11	44
09	천안	36	43	11	10	15	48
10	충북청주	36	40	8	16	12	32
11	안산	36	37	9	10	17	35
12	경남	36	33	6	15	15	45
13	성남	36	26	5	11	20	34

3~4월

심상치 않았던 김천, 조직으로 승부한 포항



김천 주요 지표
1-9R

11.1xG 대비
14득점
최다 돌파 시도
53회

3월 최다 득점자
김현욱(4골)

2024시즌 3-4월이 종료된 시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김천과 포항이 K리그1 정상권을 점유했다.

먼저 김천은 승격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다. 정정용 감독의 전술적 역량은 물론, 김대원·강현목·김현욱 등 탁월한 2선 자원들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 김천은 기대 득점(11.1xG)에 비해 훨씬 많은 득점(14골)을 기록하며 결정력의 진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1년 이상 합을 맞추며 승격을 이끈 베테랑 병사들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병장 김현욱'은 3월 4경기에서 4골을 기록, 본대장의 품격을 보여줬다.



포항 주요 지표
1-9R

8.8xG 대비
13득점
13골 중 9골
70분 이후 득점

3~4월 최소 실점
(6실점)

김천과 함께 두드러졌던 팀은 포항이었다. 신임 박태하 감독의 지도 아래 포항은 3-4월의 아홉 경기에서 5승 3무 1패를 기록했다. 포항은 4-4-2 수비 포메이션을 활용한 조직적인 디펜스로 안정감을 가져왔다. 공격에서는 주로 3-2-4-1 포메이션을 활용, 상대의 포켓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포항은 이러한 공수 패턴으로 광주·수원FC·서울 등 만만치 않은 클럽들과 대결에서 승리를 따냈다. 이게 시즌 초반 동력 형성에 주효했다. 포항의 결정력도 김천 못잖게 대단했다. 포항은 기대 득점(8.8xG)에 비해 약 4개 더 많은 13개의 득점을 기록했다. 또한 특유의 집중력으로 대부분의 득점을 후반 막바지에 터뜨렸다. 첫 두 달 간 기록한 13골 중 무려 9골을 70분이 넘어서 작성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포항 특유의 강철 멘탈리티가 빛을 발산했다.



시즌 초반 70분 이후
득점으로 많은 승점을
획득했던 포항



5월

강원의 신비로운 질주, 울산이 보여준 제왕의 저력



강원 주요 지표
10-15R

중원 지역 패스성공률 84.4%(11위) → 89.4%(2위)

황문기 xT 4.8 (팀 내 1위)

15R까지 중리그 최다 실점 (17실점)

5월 들어서는 선두권을 뒤흔드는 팀들이 많이 등장했다. 디펜딩 챔프 울산의 진입은 자연스러웠는데, 여기에 뜻밖에 강원이가세했다. 강원은 약체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졌다. 2023시즌의 강원은 K리그 중상 플레이오프까지 경험하는 위기를 겪었는데, 2024시즌은 K리그1 선두권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우 측면의 황문기를 전진시키는 변형 3-2-4-1 공격 포진이 강원만의 무기였다. 여기다 이상헌과 양민혁이 상대 포켓에 주기적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이기혁은 센터백으로 멋지게 변신하며 후방을 보호했다. 윤정환 감독의 전술 최적화, 황문기·이상헌·양민혁·이기혁 등 유닛들의 약진 등 강원은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수치에서도 상승이 포착됐다. 강원은 2023시즌과 비교했을 때 공격 및 중원 지역에서 패스 성공률을 개선해냈다. 다만, 이맘때를 기준으로 발생했던 리그 17실점은 강원만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강원은 시즌 내내 3-2-4-1 공격형태를 활용해 상대 포켓을 공략했다



울산 주요 지표
10~15R

11득점 (2위)

전진 패스 1,564회 (1위)

공격 지역 패스 818회 (1위)

‘K리그의 제왕’ 울산은 이즈음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다.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를 치르는 까닭에 5월 한 달 동안 무려 7번의 K리그1 일정을 소화했지만, 그럼에도 승점 11점(3승 2무 2패)을 확보했다. 강행군을 견디는 모습에서 울산이 왜 울산인지가 드러났다. ‘더블 스쿼드’ 구축 효과는 시즌 초반부터 나타났다. 울산은 포지션을 불문하고 K리그1 A급 자원들을 쥐고 있는데, 덕분에 K리그1과 ACL을 병행하면서도 힘을 유지해냈다. 심지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이동경이 입대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우·이규성·고승범·강윤구·보야니치·마테우스 등을 회전하며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을 다채롭게 꾸렸다. 어깨 수술을 받아야 했던 설영우의 공백은 윤일록·최강민으로 메웠다.





6월

주저앉은 전북과 대전,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다



전북 주요 지표
16~20R

12실점 (1위)
슛 허용 70회 (2위)
PPDA 16.5 (11위)

시즌이 절반가량 진행됐던 6월. 기업 구단 두 팀의 심적 압박은 최대치로 치솟았다.

먼저 전북은 2023년의 패턴을 반복했다. 김상식 감독과 중도에 이별했던 2023시즌처럼, 2024시즌엔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팀을 떠났다. 위기의 전북을 위해 소방수로 나타난 건 김두현 감독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반전되지 않았다. 김두현 감독과 전북은 승점 가뭄에 시달렸다. 6월 5경기 성적은 2무 3패에 그쳤다. 시급한 문제는 수비였다. 전북은 5경기에서 12번의 실점을 기록했다. 센터백 이재익을 중심으로 파트너를 교체해왔고, 이재익-구자룡-김태환의 백 3까지 시험했지만, 좀처럼 안정의 실마리를 잡아내지 못했다. 6월 마지막 경기였던 서울전에서 5골을 내주고 무너지기까지 했다. 전북은 서서히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대전 주요 지표
16~20R

팀 xT 0.59 (12위)
공격 지역 패스 385회 (11위)
4득점 (12위)

대전의 상황도 전북과 판박이었다. 대전은 새로운 사령탑으로 황선홍 감독을 택했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 선임 이후에도 상황은 쉽사리 반전되지 않았다. 대전은 빈약한 공격력이 발목을 잡았다. 새로운 시도는 있었다. 3-4-3 전형을 도입했고, 김승대·윤도영·김인균 등 발 빠른 공격자원들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상대 진영을 공략했다. 줄어든 중원의 숫자는 주세종·이순민·임덕근 등 수비력과 활동량에 장점이 있는 미드필더로 커버했다. 그러나 공격력이 좋아지진 않았다. 대전은 6월 한 달 동안 xT 수치에서 0.59를 기록, 상대 지역 진입에 애를 먹었다는 씁쓸한 결과만을 남겼다. 공격 지역 패스 시도수치에서도 리그 11위에 불과했다. 대전의 고민은 커져만 갔다.



준족의 WF를 활용한 상대 지역으로의 진입을 주안점으로 둔 대전



7~8월

최상위권을 긴장케 한 복병들, 수원FC와 서울



수원FC 주요 지표
21-28R

파이널 서드 패스
3,668회(1위)

슛 120회
(2위)

득점 18회
(1위)

이맘때엔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새로운 팀들도 등장했다. 김은중 감독의 수원FC와 김기동 감독의 서울이었다.

수원FC의 김은중 감독은 2024년이 프로 사령탑 첫 번째 해였다. 그렇지만 초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즌 초반엔 잠시 주춤했으나, 봄과 여름을 지나며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특히 4월엔 K리그 17경기에서 3승 3무 1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고, 그때부터 8월까지 꾸준함을 유지했다. 수원FC는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평균 6.7점의 승점을 수확했다. 덕분에 8월에 선두권에 근접했다. 수원FC는 강원과 승점 차를 3점까지 좁히며 3위에 올라섰다. 김은중과 아이들의 강점은 밸런스였다. FW-MF-DF 각 포지션에서 지동원-윤빛가람-권경원 등의 베테랑이 뼈대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다. 김은중 감독의 전술적인 유연성도 한몫했다. 수원FC는 4-1-4-1 포메이션으로 간결한 패스 플레이를 추구했는데, 필요할 때는 3-4-3 형태로 변신해 상대를 혼란스럽게 했다.



서울 주요 지표
21~28R

PPDA 11.9
(4위)

xT 1.68
(1위)

인터셉트 95회
(1위)

서울은 속도가 약간 더졌어도 기어이 전진에 성공했다. 2024시즌을 앞두고 가장 큰 변화는 '거물' 김기동 감독의 영입이었다. 또한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의 제시 링가드까지 서울 유니폼을 입었다. 그럼에도 첫 번째 로빈은 쉽지 않았다. 김 감독도, 링가드도 기대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서울은 11라운드를 마쳤을 때 승점이 15점에 불과할 정도였다. 그러나 새로워진 서울은 독심 있게 나아갔다. 4-4-2 포메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비로소 상승세에 올라탔다. 6월엔 속도가 붙었다. 서울은 수원FC-강원-전북을 연파하며 단숨에 파이널 A 권역으로 상승했다. 그러고는 7월과 8월을 지나는 사이 5연승까지 이룩하며 '전통 강호'의 이미지를 회복했다. 이 시기엔 수비수 최준이 미드필더로 변신하며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투 톱을 제로 톱처럼 활용하며 상대 포켓을 공략한 서울

9~10월

실리주의를 택한 제주와 일관성을 유지한 광주



제주 주요 지표
29~35R

득점 9회
(2위)

시퀀스 당 소유 시간
9.03초 (12위)

시퀀스당 패스횟수
3.32회 (12위)

제주와 광주는 시즌 내내 상위권과 인연이 없었다.

일단 올해의 제주는 굉장히 평범한 시간을 보냈다. 시퀀스당 패스 횟수, 지속 시간, 전진 속도 등을 나타내는 매트릭스 차트에서 대개 보통에 머물렀다. 특색이 없었다는 뜻이다. 9월과 10월엔 더 심플해졌다. 시퀀스당 공 소유 시간이 단 9.03초에 불과했고, 패스 횟수도 3.32회로 줄었다. 모든 지표가 리그 최하위였다. 하지만 결과만큼은 잡아갔다. 7경기에서 5승 2패를 기록하며 삼시간에 강등권과 멀어졌다. 생존이라는 목적을 두고, 공격성과 재미를 내려둔 채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한 김학범 감독의 판단이 맞아떨어졌다. K리그1 팀에 강등을 면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광주 주요 지표
29~35R

PPDA 7.1
(1위)

시퀀스당 소유시간
13.45초 (1위)

시퀀스당 전진속도
7.82km/h (12위)

광주도 시즌 막바지에 힘을 쓰지 못했다. 9월과 10월의 7경기에선 2승 1무 4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물론 광주는 다른 하위권 클럽들과는 사정이 다르긴 했다.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에 출전하느라 선수단 체력 소모가 극심했다. 이런 와중 K리그1에서 잔류를 이뤘다는 것도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광주는 팀 컬러만큼은 확실하게 유지했다. 7.1의 압박 강도로 격렬함을 자랑했고, 포항·김천·서울 등 강호들을 상대하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전에서는 5.7의 압박 강도를 기록하며 3-1 승리까지 이뤄냈다. 공격에서는 이정호 감독의 팀답게 정체성이 뚜렷했다. 13.45초의 시퀀스당 공 소유시간과 7.82km/h의 전진 속도를 써 내리며 K리그1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을 소유한 클럽'으로 기록됐다. 광주는 언제나 그랬듯 주도권을 쥐고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팀이었다.



33R 서울전에서 5.7 PPDA를 기록한 광주의 거센 전방 압박



11월

충격이었던 인천의 몰락, 마지막 기회를 잡은 대구



인천 주요 지표
36~38R

슛 51회
(1위)

유효 슛 19회
(1위)

공중볼 경합 성공
99회(1위)

K리그1에서 반드시 한 팀은 강등 당한다. 잔혹한 드라마다. 2024시즌은 비극의 주인공이 인천으로 결정됐다. 전북과 대구엔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12위였던 인천엔 어떠한 구명줄도 내려지지 않았다.

인천은 절망적인 한 해를 보냈다. 위기를 감지하고 과감하게 감독 교체를 단행했지만, 그 수가 끝내 적중하진 않았다. 인천의 전성기를 이끈 조성환 감독을 떠나보내는 강수까지 뒤통에 아쉬움은 더 컸을 수밖에 없다. 인천은 최영근 감독 부임 이후에도 부진했다. 치명타는 36라운드 전북전이었다.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절실했던 인천이지만, 결국 제대로 칼을 빼들지 못했다. 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이 인천을 마비시켰다. 득점왕 무고사를 탄생시키기는 했으나 팀 인천의 몰락은 K리그1에 충격을 남겼다. 어떻게든 생존하던 이미지가 강했던 인천이라 더욱 그렇다.



대구 주요 지표
36~38R

경기당 평균 툰 오버
획득 67.3회(5위)

시퀀스당 소유 시간
3.14초 (11위)

PPDA 11.7
(12위)

대구는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다이렉트 강등을 피했고,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충남아산을 잡고 생존을 신고했다. 대구 또한 인천처럼 사령탑 교체를 단행한 시즌이었다. 최원권 감독이 떠난 뒤 박창현 감독이 새롭게 팀에 왔다. 박창현 감독의 대구는 현실적인 결과에 집중했다. 기존 대구의 플레이스타일, 즉 에드가와 세징야를 앞세운 선 굵은 축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모두가 다 아는 대구 고유의 패턴이지만, 그만큼 강력한 방법이었기에 단기간에 다른 대안을 찾긴 힘들었다. 대구는 단조롭고, 창의적이지 못했다. 그래도 세징야와 에드가는 개인을 앞세워 기어이 잔류라는 목표를 이뤘다. 특히 세징야는 언제나 그랬듯 대구의 왕으로 기능하며 시즌 막판의 팀을 구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세징야의 분전이 없었다면 대구는 2024시즌을 넘기는 게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다.



대구는 시즌 내내 선 수비 후 역습 전략과 함께했다



K리그1 챔피언의 성공 방정식

‘공격하는 방패를 든’ 판곤왕의 울산



중도 부임한 팀에서 우승을 이뤄야 한다는 미션, 정말 쉽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제가 울산에 막 왔을 때 선수들이 환경적·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선수단의 집중력을 강화해야만 했습니다. 시즌 중 어려웠을 때는 보강한 전력들이 기대치만큼 해주지 못했을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걸 다 떠나 울산이라면 당연히 압박을 받아야 하는 클럽입니다. 직접 겪어보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웃음).”

그럼에도 기어이 K리그1을 삼켰습니다. 원동력을 하나 꼽아준다면?

“일단 울산 선수들의 우승 경험, 그리고 전임 감독께서 짜둔 좋은 스쿼드 등이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의 ‘변화’도 영향을 줬다고 봐요. 부임 후에 게임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기존의 틀을 유지할 건가, 아니면 내가 구상한 게임 모델을 접목해볼 건가의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수비에서부터 손을 좀 대야겠다고 맘 먹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바뀌준 게임 모델이 짧은 시간 안에 잘 달라붙은 거 같아요.”

수비엔 어떤 식으로 변주를 준 걸까요?

“울산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능동적인 팀이었어요. 그 부분을 잘 살려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만, 수비에서 발생하는 느슨함을 지우고 진영을 보다 뾰족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명확한 수비 시작점을 설계하고, 후방에 다소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해도 높은 지점에서 압박하며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K리그가 공격적인 수비에 대해 소극적인 부분이 좀 보여요. 하이 프레싱을 포기하고 미들 블록부터 접근할 때가 잦습니다. 전, 관중들이 흥미롭게 경기를 즐기려면 더 ‘공격적인 수비’가 필수라고 봐요. 울산의 축구가 팬들의 지루함을 조금은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판곤 감독은 어려운 일을 해냈다. 시즌 중 리더가 이탈해 어수선한 울산을 다잡아 기어코 정상으로 끌어올렸다. 흔들리는 왕권을 어떻게든 수호해낸 ‘독심 있는’ 왕의 형상이었다. 시즌 내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곤왕은 보다 격렬한 축구를 이식해냈다. 김 감독에게 ‘2024 K리그1 챔피언 클럽 운용법’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요청했다.

연맹 TSG 데이터에 따르면,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울산답게 K리그1 압박 강도가 ‘으뜸’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울산엔 얼마나 중요한 가치일까요?

“중요합니다. 선수들과는 ‘항상’ 해당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울산의 압박 강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지표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 클럽과 비교해본다면 어떤지요. 내년에는 압박 강도가 더 높아져합니다.”

K리그에서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압박 강도를 더 끌어올려야 하나요?

“네. 그런 방향성을 추구합니다. 압박 강도 유지는 개인의 체력과 팀의 기강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상대를 압도해야 하죠. 더 격렬한 울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놀라운 건, 공격적인 수비를 하면서도 K리그1 최소 실점까지 이뤄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우리 실점률이 낮아졌습니다. 최

소한의 실점 역시 제가 항상 요구하는 지점입니다. 2024년의 울산은 공격적인 수비를 하더라도 실점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공부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리스크를 택하는 수비가 반드시 실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엉덩이를 뺀다고 실점을 덜하는 거도 아니고요. 각 상황마다, 블록마다 얼마나 계획을 준비해두느냐가 핵심입니다.”

반면 팀 특점은 우승팀치고는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특점이 더 나왔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찬스는 분명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마무리에서 주기적으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냥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지점이 향후 울산의 과제가 될 듯합니다. 결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선수의 영입도 필요하겠죠.”

연맹 TSG 데이터에 따르면, 울산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상위권이었는데요. 크로스 성공률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목표가 명확한 크로스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공을 어느 지점으로 보낼지, 공을 받을 선수는 어디로 달릴지, 더욱 뚜렷해져야 해요. 항상 아쉬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어떤 지점을 타격할 것인지, 어떤 각도로 크로스를 올려야 할지, 크로스 지점에 우리 숫자는 얼마나 갖추고 있어야 할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맹 TSG가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2024 K리그1 MVP이자, 울산의 수문장인 조현우인데요. 다른 골키퍼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정말이지 압도적이었습니다.

“언터처블! 조현우는 절대적입니다. 끊임없는 선방으로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니까요. 모든 경기엔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때 넣느냐, 막느냐에 따라 게임이 갈릴 때가 많죠. 울산은 거기서 조현우가 막아줍니다. 조현우는 최소 실점 달성에 커다란 도움이었고, 우승 과정에서도 든든한 동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조현우의 ‘일상’ 같은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선수들에게 사령탑의 게임 모델을 이해시키는 게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감독이 머릿속에서는 상당히 좋은 축구를 생각할 줄 압니다. 관건은 표현이죠. 지도자의 관념이 경기력으로 표출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명확한 게임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에 따른 세세한 플랜까지 짜서 선수들에게 전달해야죠.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엔 리허설을 꾸준히 해야 하고, 리허설 이후엔 곧장 피드백! 울산은 이런 패턴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소통의 과정에서 선수들의 이해도를 최대한 향상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란 무엇일까요?

“글쎄요(웃음). 일단 전술이라는 건 돌고 돌니다. 트렌드를 빨리 읽고, 그걸 쫓아가는 게 중요해요. 또한 선수단의 체력 관리도 신경 써야죠. 나아가 체력을 넘어 선수단 전체의 ‘관리’까지. 요즘은 어떤 지도자의 특징이 조금만 나타나면 너무 쉽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훌륭한 감독이라면, 명료한 게임 모델을 바탕으로 축구 철학을 정립할 줄 알아야 하고, 그걸 운동장에서 표현을 시키며, 선수들까지 역동적으로 묶어내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내야 합니다.”

감독 김판곤만의 무기가 있다면?

“제가 가진 장점이라면...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지도자의 덕목을 일컫는 모든 요소에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 뽐죽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말할 수 있는 게 몇 개 더 있긴 하네요. 국가대표팀 관리를 워낙 오래한 덕분에 선수들에게 단기간에 게임 모델을 전달하고 안착시키는 데엔 익숙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결집시키고 동기부여를 주는 부분에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을 거 같아요. 감독님만의 멘탈 관리 비법이 있다면?

“막판에 K리그1 우승 경쟁할 때는 26년 지도자 생활 가운데 몇 번 겪지 않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압박이 올 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혼자서 명상을 하고, 목표를 하곤 했어요. 축구를 하며 받은 수많은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제가 체득한 게 무엇이나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나간 결과를 뒤로 보내버리고, 다시 오늘과 내일을 준비해야죠. 정신을 긍정적으로, 맑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겨도 취하면 안 됩니다. 승리에 머무르면 안 되고, 승리 역시 뒤로 보내야 해요. 오늘 다시 또 준비 과정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모두에게도 말합니다. 반드시 이길 수는 없다고. 다만, 경기 전까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최대한 높여두자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받아들이자고.”

지도자에게 선수 관리와 전술,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할까요?

“둘을 떼려야 뗄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전술적 역량도 필수적이고, 선수단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일단 지도자로서 전술적 역량을 보여줘야 선수들이 따라주겠죠. 동시에 선수들에게는 ‘코칭 스태프는 너희들을 돕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항상 심어줘야 해요. 전 둘 다 중요하다고 말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전술적 능력도, 선수단 관리 능력도, 모두 갖춰야 감독의 역량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2025 울산은 또 다른 도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팀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일단 선수단의 급격한 변화는 쉽지 않을 거예요. 각자의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새로운 선수들도 찾아볼 텐데, 다이내믹한 캐릭터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기술력을 갖춘 선수들,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을 최대한 영입해야겠죠. 울산이기에 가장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전술적으로는 아까도 언급했듯 더욱더 공격적인 수비를 원합니다. 울산이 상황을 보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게임. 그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볼 참입니다. 좋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가장 주도적이고 공격적으로 플레이 하는 모습, 2025 울산은 지금보다 더 그런 팀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안양의 대장에게 들어보는 ‘보랏빛 피날레의 원동력’

유병훈 감독과 안양은 2024 K리그2 챔피언에 등극했다. 압도적이진 않았다. 군데군데 약점도 노출했고, 시즌 중인 좌초될 위기도 여러 번 발생했다. 그러나 안양은 굳세게 전진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결승점에 닿았다. 2024년 한국 2부리그에서 가장 강력했던 클럽 안양. 보랏빛 피날레의 원동력을 팀의 ‘대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과거의 안양과 달리 올해는 백 스리보다 ‘백 포’의 색깔이 짙었습니다.

“안양이 7년간랑 백 스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백 스리는 중원을 안 거치는 경우가 잦아요. 다이렉트가 많죠. 다이렉트로 쓰니까, 공을 뺏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게 체력 부담으로 연결되곤 했습니다. 쉽게 말해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선수들 개인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잦았어요. 잘 될 때는 골을 넣었지만, 안 풀릴 때는 진짜 안 풀렸습니다.”

백 포를 택하면서 안양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백 포로 가는 게 수비적으로는 부담이 됐습니다. 그걸 중원의 숫자 증대와 필드플레이어들의 헌신적 움직임으로 극복했습니다. 수치에서도 나타났듯, 득점력은 예년에 비해 저조해졌어요. 대신 백 포로 가는 와중에도 수비 안정화를 이뤄냈습니다. 덩달아 중앙을 거쳐 가는 빌드업도 나아졌고요. 결과론적으로 백 포 선택은 좋은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을 잘 짜도 선수들에게 주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유 감독님은 선수들에게 생각하는 바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나요?

“좀 집요하다고 할까요? 무엇이든 반복적으로 보여줬어요. 한 번에는 안 돼요. 미팅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게 반복됩니다. 또한 백 포 바꾸는

시즌이었으니 예년보다 고충이 더 많았죠. 고충이 생길 때마다 ‘우리 얘기하자’라며 대화했어요. 변화를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했죠. 선수들과 코치진과, 나의 생각이 잘 묻혀질 때까지. 감독이라 제 생각의 지분이 아무래도 컸을 테지만, 적어도 30% 이상은 선수들과 코치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수용해서 반영했던 거 같아요.”

구성원들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갔는지 궁금합니다.

“끝에 가서는 제가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해요. 감독이 결단을 내려야 일이 진행되잖아요. 오랜 코치 시절을 지나며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경기들을 기록해둔 ‘실패 노트’도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결론을 짓기 어려울 때는 과거에 쌓아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의사 결정을 내리곤 했어요.”

올해 K리그2는 ‘지옥’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옥이라는 표현도 맞는데, 저는 다들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선수의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오래전의 K리그2는 팀마다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한두 명씩은 경기장에 나오곤 했어요.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K리그2의 역사가 오래되니 K리그1에서 뛰던 베테랑들도 적잖이 2부리그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K리그2

선수들이 보고 배워요. K리그1에서 뛰던 자원들의 장점을 K리그2가 흡수해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챔피언 안양의 특징 중 하나가 확실한 골잡이의 원맨 쇼보다는, 여러 루트에서 골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선수 구성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겐 이자택일이 필요했어요. 확실한 득점원 한 명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명을 찾을 것인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승이 목표였다면 확실한 득점원을 골라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해을 안양의 타깃은 솔직하게 말해 플레이오프 진출이었거든요. 돈을 많이 쓸 순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활동량 많은 선수가 팀에 늘어났고, 덕분에 여러 루트에서 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24 안양 전술에서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맞아요. 모든 플레이를 선 굵게 가져가면 경기력이 들쭉날쭉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거든요. 중원에 숫자를 늘려 원터치 패스로 게임을 풀어가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 수적 우위에 대한 연습을 동계 전지훈련 때부터 매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명을 두되, 때로는 다이아몬드로

다섯 명도 만들어보고요.”

올해 안양 전술에서 선수들의 체력 소진 속도는 어땠나요?

“공격할 때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수비 때가 체력 소진이 심했어요. 공을 빼앗겼을 때 싸움을 걸어 상대를 빠르게 몰아내는 게 무척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수비 원칙을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 대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형이 잘못됐을 때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1차 압박과 2차 압박, 나아가 파울과 측면 몰아내기 등 수비 시 우리만의 방법론과 순서를 만들어뒀습니다.”

시즌 전에 전술을 얼마나 준비해두는지도 여쭙보고 싶어요.

“완전히 제 생각인데요. K리그2에서는 전술 하나로 대략 10경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계 전지훈련 때 하나가 잘 되면 다른 하나로 넘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혼돈이 발생하더라고요. 선수들의 머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과한 적도 있어요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초보 감독으로서 실수는 했지만 여러 전략이 필요하다고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즌 중에 훈련할 수 있는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포메이션에 변형을 줬어요. 그렇게 변형을 주면서 4승 정도를 추가로 당겨왔던 기억이 나네요.”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 가고 역을 잘했던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창용 선수죠. 엄청나게 잘했었어요. 코칭스태프의 미팅이 끝나면, 창용이가 또 다른 선수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제겐 아이들이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할 수 있지만, 창용이에게는 얘기하겠죠? 이후에 창용이와 제가 미팅을 가져봅니다. 거기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제가 받아들일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맹 TSG 데이터에 따르면, 안양은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턴 오버가 유독 많은 클럽이었습니다. 어

떻게 보면 이상한 숫자네요. 우승팀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안양이 원터치 플레이를 추구하다 보니까 실수가 잦아요. 성공했을 때는 좋지만 실패했을 때는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턴 오버 숫자도 안 좋게 나올 만해요. 하지만 우리는 볼을 빼앗겨도 바로 빼앗습니다. 압박을 빠르게 걸어서 재탈취를 하거든요. 표면적으로 턴 오버 숫자는 올라가겠지만, 이후에 다시 볼을 가져왔다는 점도 간과 해선 안 될 거 같아요. 결국 중원의 수적 우위를 두는 안양의 방식이 공격의 용이함을 위해서도 있지만, 수비적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함도 있어요.”

TSG의 데이터베이스는 안양의 공 소유 시간이 리그 하위권이라고 말합니다.

“소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 후반에서 불필요한 횡패스와 백패스를 못 하게 합니다. 뒤에서 볼을 드리면 점유율은 올릴 수 있겠죠. 70%까지도 할 수 있을 걸요?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빠르게 전개해야죠. ‘뺑 축구’가 아니라 원터치 패스로 계속 나아가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공 소유 시간보다는 나아감이 중요해요. 마테우스 선수가 속도감 있는 빌드업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2024시즌 기준으로 안양의 전술적 ‘키 맨’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김정현 선수. 정현이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뒹어주며 마치 우리가 백 스리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여기다가 원터치 패스는 물론 대각선 패스까지 능하죠. 사이 공간으로 볼을 잘 돌려줍니다. 공수 전반에 걸쳐 커다란 역할을 해냈어요.”

전술적으로 멋진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보이지 않는 유대감도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 팀은 진짜 끈끈해요. 선수들이 오래되기도 했고, 뭐가 잘못돼도 남 탓하는 선수조차 없습다. 그저 ‘우리 다시 해보자’ 그런 말들만 하며 서로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죠. 잘은 모르지만, 안 좋은 팀들은 서로서로 미워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유 감독님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정신적 회복력이 빨라요. 술 먹어서

풀 때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빨리 털고 일어나요. 오히려 새로운 축구를 보며 스트레스를 회복해요. 다음 게임을 준비하면 잡념이 날아가는 타입입니다.”

‘병훈이 형’을 외치던 김동진 선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난기 가득한 선수는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동진이에게 정말 고마워요. 동진이는 제가 어떤 주문을 해도 짜증을 내지 않아요.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동진이처럼 베테랑 선수가 잘 따라주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동진이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우리의 걱정을 날려줬어요.”

안양의 우승 원동력을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선수단이 30명이라고 칠게요. 10명은 주로 경기에 나가고, 10명은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10명은 주로 벤치에만 머물러요. 여기서 경기에 나서지 않는 선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안 뛰는 선수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이게 팀을 위해 서라는 믿음이 생기면 조직이 단단해집니다. 누군가는 빛나는 조연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전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던 주연 같은 선수들이 있었기에 안양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제 진심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전술 VS 선수 관리?

“K리그2 기준으로만 말해보자면 50:50. 특별한 선수가 가득한 세계 최상위 리그라면 전술이 더 중요하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선수들과 소통이 전술만큼 중요하다고 봐요. 선수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서 끌고가는냐가 관건입니다.”

2025 K리그1의 안양에 대한 힌트를 조금만 준다면?

“2024년을 업그레이드해서 가져갈 거예요. 선수단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스무 명언저리는 그대로 갈 듯해요. 예상상 더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기도 힘들거든요. 우리는 개인 능력으로 갈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팀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죠. 압박에 대한 강도를 조절하며, 조금 더 위에서 싸우면서, 두드러지지 않게끔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MVP

조현우



우리는 지금 'K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를 보고 있다. 울산의 수문장 조현우가 2024 K리그1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조현우는 과거 수원, 이운재 이후 역대 두 번째 골리 출신 MVP가 됐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이미 이운재를 '훌쩍' 초월했다. 조현우는 이번 시즌까지 포함해 8년 연속 K리그1 베스트 11 문지기 부문에 선정됐다. 100년이 지난다고 한들 이런 선수가 또 출현할 수 있을까? 2024시즌 스탯에서도 조현우는 누구보다 압도적이었다. 클린시트, 펀칭, 골킥 성공, 패스, 패스 성공률 등 GK 주요 지표에서 모두 최상위권을 마크했다. 조현우는 2025년도 MVP를 노리겠다고 선언했다. 현재의 동물적인 품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K LEAGUE 1 BEST 11

GK

조현우
 골킥 성공 182회

끊임없이 진화한다. 위기 상황에서 선방은 이전 자연스러워 보이고, 2024시즌은 '발끝'마저 더 좋아졌다. 골킥 성공 횟수에서 당당하게 1위에 랭크됐다. 찰떡하게 전진하는 울산의 철학이 조현우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DF

이명재
 크로스 성공 44회

'원발 정확도' 하면 이명재였다. 2024시즌을 지나며 무려 44회나 아름다운 크로스를 성공시켰다. 2024년을 지나며 대한민국 남자 국가대표팀에 소집된 이유가 여기 있다. 바야흐로 레프트백 포지션에서 한국 최고 레벨로 떠올랐다.

DF

김기희
 피지컬 경합 성공률 60.5%

'울산 그라운드 리더십의 표본' 김기희는 지능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필요할 땐 몸으로 싸우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피지컬이 요구되는 순간엔 야깁함이 몸을 던졌다. 챔피언 클럽의 '핵심 센터백' 기능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수행했다.

DF

박승욱
 전진 패스 885회

동료의 진격을 돕는 중앙 수비수였다. 주기적인 전진 패스로 김천 빌드업의 시발점이 됐다. 박승욱은 최근 가슴에 태극마크까지 다는 등 2024년을 황홀하게 보냈다. 현 페이스라면 2025년엔 K리그1 '오피스' CB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인다.

DF

황문기
 2골 7도움

2024시즌 K리그1 수비수들을 통틀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여간한 잉어와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를 남겼다. 강원, 전북의 변형 백 3 전술은 황문기가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진하는 황문기는 쉽사리 막아낼 수 없는 존재였다.

MF

안데르손
 기대 위협(xT) 7.8

7골 13도움. 공격 포인트 20개. 안데르손은 2024시즌 K리그1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로 기록됐다. 기대 위협 수치가 1등으로 나온 건 응당했다. 안데르손이 공을 잡으면 뭔가 이뤄질 것만 같은 느낌이 시즌 내내 지속됐다.

MF

고승범
 경기당 평균 뛸 거리 11km

K리그1에서 가장 격렬하게 게임을 운영하는 울산에서 고승범의 역할은 대체 불가였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고승범은 동료들 사이에 발생하는 빈틈을 충실하게 메워냈다. 많이 뛰는 축구의 인간화, 그것이 울산의 미드필더 고승범이었다.

MF

오베르단
 포항 스틸러스

'스틸타카'의 지휘자. 중원에서 시도한 패스가 1,536회로 압도적인 1위였다. 2024년 포항이 굴리는 공은 대개 오베르단의 발끝을 거쳤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패스 성공률마저 94.2%로 1위였다. 포항은 무시무시한 MF를 가지고 있다.

MF

양민혁
 스프린트 횟수 1,100회

'급가속'의 장인이었다. 양민혁은 걸핏하면 속력을 올려 상대 수비진을 곤혹스럽게 했다. 그렇게 뛰다 보니 2024시즌 중 스프린트만 1,100회를 달성했다. K리그1 전체 1위다. 토트넘 홋스퍼가 양민혁을 데려가는 건 다 근거가 있다.

FW

이동경
 기대 득점 대비 +3.8골

2024시즌 전반기는 울산, 후반기는 김천에서 보냈다. 시즌 전체를 관통하며 흔들림 없이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다. 이동경의 품은 2024시즌 들어 다 시금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봐도 좋지 않다. 2024년을 대표하는 K리그1 공격수 중 한 명이 틀림없었다.

FW

이상헌
 13골 6도움

양민혁과 황문기의 활약도 좋았지만, 이상헌이야말로 강원의 '공격 대장'이었다. 그는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맞았다. 무려 19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며 K리그1 일타 스탯 머신으로 격상했다. 2025년, 이상헌의 퍼포먼스가 더욱 기대된다.

MVP

마테우스



이전 없는 MVP였다. 각 팀 감독으로부터 '올표'를 받았고, 각 팀 주장과 미디어로부터도 고루 인정받았다. 마테우스는 2024시즌 K리그2 MVP는 물론 도움왕과 베스트 11까지 석권하며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그려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는 마테우스는 안양 승격의 '일등 공신'이었다. 간결하고 치명적으로 뿌려주는 패스와 번개처럼 공간을 파고드는 센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안양 역사에 새겨진 마테우스는 2025년엔 K리그1에서 역사를 써보겠다고 다짐했다. 마테우스가 2024년의 품만 유지해내면 안양의 드라마는 1부리그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

K LEAGUE 2 BEST 11

GK

김다솔
 클린시트 12회

안양은 시즌 36경기를 단 36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그 과정엔 수문장 김다솔의 공이 지대했다. 김다솔은 자신이 출전한 35경기에서 12차례나 무실점 방어에 성공했다. 김다솔의 안정감은 안양이 승격으로 가는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DF

김동진
 5골 3도움

K리그1에 황문기가 있었다면, K리그2엔 김동진이 있었다. 김동진은 '공격하는 수비수'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냈다. 좌 측면을 용맹하게 오르내리며 공격을 지원했다.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매사 밝은 마인드셋 또한 안양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DF

오스마르
 7골

클래스는 영원했다. K리그와 이별할 뻔했던 오스마르는 다시 돌아와 서울 이랜드의 든든한 성벽으로 기능했다. 디펜스가 전부는 아니었다. 오스마르는 홀로 7골을 기록하며 세트피스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마치 세르히오 라모스 같았다.

DF

이창용
 패스 성공률 91.4%

안양의 그라운드 리더. 수비 라인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91.4%로 기록된 패스 성공률은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안양이 순조롭게 빌드업을 전개했음을 의미한다.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했다.

DF

이태희
 전진 패스 837회

안양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훌륭한 측면 수비수를 보유한 팀이었다. 우측면의 이태희는 전진하는 김동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라운드를 활보하며 팀의 후방을 지휘했다. K리그2 라이트백 중 이태희보다 전진 패스가 많은 선수는 없었다.

MF

루이스
 스프린트 797회

팀 컬러가 루이스의 스타에도 정확하게 반영됐다. 김포는 잔뜩 움크린 채 타이밍을 재다가, 찬스가 보이면 득달 같이 전방으로 질주한다. 그 상황에서 루이스는 언제나 돌격 대장이었다. 스프린트 횡수가 리그 2위로 집계된 건 우연이 아니다.

MF

발디비아
 크로스 224회

'광양 예수' 발디비아는 2024시즌도 출중했다. 12골 6도움을 기록, 리그 최상위권 공격 포인트를 작성했다. 심지어 크로스 횡수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발디비아가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발을 휘둘렀다는 의미다. 그는 언제나 전남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MF

김정현
 수비 지역 내 태클 45회

안양은 2024시즌 내내 역동적인 추구를 추구했다. 그러다 보면 중원에 공간이 발생할 때가 잦는데, 그걸 김정현이 메웠다. 김정현은 거침없는 동작으로 상대의 공격과 카운터를 차단했다. K리그2 MF 중 수비 지역 내 태클 1위가 바로 김정현이었다.

MF

주닝요
 12골 8도움

소속 팀에 미치는 영향력만 계산했을 땐, 주닝요야말로 K리그2 최고의 유닛이었다. 주닝요는 자신이 직접 골을 뽑아내는 건 물론, 동료들의 생산 능력까지 함께 끌어올렸다. 충남아산 감독 2위의 가장 큰 이유는 분명 주닝요였다.

FW

마테우스
 키 패스 66회

66회에 달하는 킬러 패스. 마테우스가 공을 타격할 때마다 보라빛 마법이 휘몰아쳤다. 그가 도움왕을 기록한 건 결국 치명적인 패스가 많았기 때문이다. 2024년을 지나며 마테우스보다 더 많은 키 패스를 기록한 존재는 리그에 없었다.

FW

모따
 16골

킬러. 진정한 킬러였다. 천안이라는 리그 내 상대적인 약체 클럽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공중전과 지상전 모두 능했던 모따는 입맛대로 게임을 풀어갔다. 동료들과 연계 능력도 준수한 편에 들어간다.

2024 K리그 개인상 투표 결과

K리그 1

부문	소속	후보명	투표수			그룹별 환산 점수			최종점수
			감독	주장	미디어	감독	선수	미디어	
감독상	울산	김판곤	2	3	14	5.00	7.50	4.83	17.33
	강원	윤정환	7	7	89	17.50	17.50	30.69	65.69
	김천	정정용	3	2	13	7.50	5.00	4.48	16.98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MVP	수원FC	안데르손	3	4	8	7.50	10.00	2.76	20.26
	강원	양민혁	1	1	33	2.50	2.50	11.38	16.38
	울산	조현우	8	7	75	20.00	17.50	25.86	63.36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영플레이어상	강원	양민혁	11	10	115	27.50	25.00	39.66	92.16
	대구	황재원	1	1	0	2.50	2.50	0.00	5.00
	포항	홍윤상	0	1	1	0.00	2.50	0.34	2.84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GK	전북	김준홍	2	1	2	5.00	2.50	0.69	8.19
	대전	이창근	1	1	9	2.50	2.50	3.10	8.10
	울산	조현우	9	10	105	22.50	25.00	36.21	83.71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DF 좌	포항	완델손	5	3	36	12.50	7.50	12.41	32.41
	강원	이기혁	1	4	27	2.50	10.00	9.31	21.81
	울산	이명재	6	5	53	15.00	12.50	18.28	45.78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DF 중앙	강원	강투지	4	2	48	5.00	2.50	8.28	15.78
	울산	김기희	3	7	51	3.75	8.75	8.79	21.29
	강원	김영빈	4	5	18	5.00	6.25	3.10	14.35
	김천	박승욱	9	4	45	11.25	5.00	7.76	24.01
	서울	야잔	3	5	62	3.75	6.25	10.69	20.69
	포항	전민광	1	1	8	1.25	1.25	1.38	3.88
	계		24	24	232	30	30	40	100.00
	계		24	24	232	30	30	40	100.00
DF 우	서울	최준	0	0	3	0.00	0.00	1.03	1.03
	강원	황문기	10	11	109	25.00	27.50	37.59	90.09
	대구	황재원	2	1	4	5.00	2.50	1.38	8.88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MF 좌	울산	루빅손	0	2	30	0.00	5.00	10.34	15.34
	수원FC	안데르손	11	8	79	27.50	20.00	27.24	74.74
	포항	홍윤상	1	2	7	2.50	5.00	2.41	9.91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MF 중앙	울산	고승범	6	8	86	7.50	10.00	14.83	32.33
	김천	김봉수	3	1	28	3.75	1.25	4.83	9.83
	대구	세징야	2	4	57	2.50	5.00	9.83	17.33
	포항	오베르단	7	5	28	8.75	6.25	4.83	19.83
	제주	이탈로	0	2	5	0.00	2.50	0.86	3.36
	광주	정호연	6	4	28	7.50	5.00	4.83	17.33
	계		24	24	232	30	30	40	100.00
	계		24	24	232	30	30	40	100.00
MF 우	강원	양민혁	7	10	106	17.50	25.00	36.55	79.05
	수원FC	정승원	3	0	5	7.50	0.00	1.72	9.22
	포항	정재희	2	2	5	5.00	5.00	1.72	11.72
	계		12	12	116	30	30	40	100.00
FW	서울	링가드	4	1	46	5.00	1.25	7.93	14.18
	인천	무고사	3	4	42	3.75	5.00	7.24	15.99
	김천	이동경	8	6	43	10.00	7.50	7.41	24.91
	강원	이상현	3	6	57	3.75	7.50	9.83	21.08
	서울	일류첸코	1	4	32	1.25	5.00	5.52	11.77
	울산	주민규	5	3	12	6.25	3.75	2.07	12.07
	계		24	24	232	30	30	40	100.00
	계		24	24	232	30	30	40	100.00

K리그 2

부문	소속	후보명	투표수			그룹별 환산 점수			최종점수
			감독	주장	미디어	감독	선수	미디어	
감독상	서울E	김도균	1	2	3	2.31	4.62	1.21	8.14
	충남아산	김현석	3	1	9	6.92	2.31	3.64	12.87
	안양	유병훈	9	10	87	20.77	23.08	35.15	79.00
	계		13	13	99	30	30	40	100.00
MVP	안양	마테우스	12	8	82	27.69	18.46	33.13	79.29
	천안	모따	1	2	9	2.31	4.62	3.64	10.56
	충남아산	주닝요	0	3	8	0.00	6.92	3.23	10.16
	계		13	13	99	30	30	40	100.00
영플레이어상	서울이랜드	서재민	4	3	37	9.23	6.92	18.27	34.43
	전남	윤재석	5	5	22	11.54	11.54	10.86	33.94
	안양	채현우	4	5	22	9.23	11.54	10.86	31.63
	계		13	13	81	30	30	40	100.00
GK	안양	김다솔	10	7	69	23.08	16.15	27.88	67.11
	김포	손정현	1	4	13	2.31	9.23	5.25	16.79
	충남아산	신송훈	2	2	17	4.62	4.62	6.87	16.10
	계		13	13	99	30	30	40	100.00
DF 좌	안양	김동진	8	10	71	18.46	23.08	28.69	70.23
	충남아산	강준혁	1	1	3	2.31	2.31	1.21	5.83
	서울이랜드	박민서	4	2	25	9.23	4.62	10.10	23.95
	계		13	13	99	30	30	40	100.00
DF 중앙	서울E	오스마르	4	8	71	4.62	9.23	14.34	28.19
	충남아산	이은범	7	1	8	8.08	1.15	1.62	10.85
	안양	이창용	4	8	74	4.62	9.23	14.95	28.80
	부산	이한도	7	6	20	8.08	6.92	4.04	19.04
	수원	조윤성	0	1	6	0.00	1.15	1.21	2.37
	충남아산	황기욱	4	2	19	4.62	2.31	3.84	10.76
	계		26	26	198	30	30	40	100.00
	계		26	26	198	30	30	40	100.00
DF 우	충북청주	김명순	3	1	12	6.92	2.31	4.85	14.08
	안양	이태희	7	9	67	16.15	20.77	27.07	63.99
	충남아산	이학민	3	3	20	6.92	6.92	8.08	21.93
	계		13	13	99	30	30	40	100.00
MF 좌	충남아산	강민규	1	0	6	2.31	0.00	2.42	4.73
	서울E	브루노 실바	0	3	42	0.00	7.50	16.97	24.47
	김포	루이스	12	9	51	27.69	22.50	20.61	70.80
	계		13	12	99	30	30	40	100.00
MF 중앙	안양	김정현	6	7	64	6.92	8.08	12.93	27.93
	충남아산	김종석	2	2	11	2.31	2.31	2.22	6.84
	부산	라마스	4	4	30	4.62	4.62	6.06	15.29
	전남	발디비아	9	8	71	10.38	9.23	14.34	33.96
	부산	임민혁	4	3	17	4.62	3.46	3.43	11.51
	수원	홍원진	1	2	5	1.15	2.31	1.01	4.47
	계		26	26	198	30	30	40	100.00
	계		26	26	198	30	30	40	100.00
MF 우	부천	바사니	6	1	30	13.85	2.31	12.12	28.28
	서울E	변경준	1	3	15	2.31	6.92	6.06	15.29
	충남아산	주닝요	6	9	54	13.85	20.77	21.82	56.43
	계		13	13	99	30	30	40	100.00
FW	전남	김종민	4	1	22	4.62	1.15	4.44	10.21
	안양	마테우스	6	11	92	6.92	12.69	18.59	38.20
	천안	모따	12	9	71	13.85	10.38	14.34	38.57
	수원	물리치	0	0	6	0.00	0.00	1.21	1.21
	경남	아라불리	0	1	2	0.00	1.15	0.40	1.56
	성남	후이즈	4	4	5	4.62	4.62	1.01	10.24
	계		26	26	198	30	30	40	100.00
	계		26	26	198	30	30	40	100.00

02

TALKING
POINTS





Topic 1

풀백의 포지션 변경

2024년은 각 팀이 전술적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된 시즌이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강원이 눈에 띈다. 서울의 최준과 강원의 이유현은 본래 풀백으로 활약하던 선수들인데, 2024시즌 도중엔 중원으로 포지션을 전환했다. 두 선수의 직무 전환은 팀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각자의 팀이 파이널 A에 당도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됐다.

최준은 서울의 오른쪽 풀백으로서 공격적 오버래핑과 크로스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4년 내내 이어진 중원 자원들의 부상으로 김기동 감독은 최준을 중원에 배치하기로 결심했다. 최준은 리그 뎀 거리 랭킹 4위에 오를 정도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했다. 중원에서 넓은 범위를 덮으며 상대의 공격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기존 풀백으로서 경험을 밑천 삼아 측면 공간 커버와 태클 등 수비 능력까지 발휘했다. 덕분에 서울 중원은 수비 안정성이 부쩍 높아졌다. 나아가 최준은 수비뿐만 아니라 빌드업에도 기여했다. 팀이 상대 압박을 풀며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 최준을 지지대로 삼은 서울은 점차 안정적·주도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됐다. 리그 xT 랭킹 3위에 오른 최준의 스탯은 그가 팀 공격 전개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한다.

강원의 이유현 또한 본래 풀백으로 활약하던 유형이었다. 그는 2024시즌 중반부터 미

드필더로 변신했다. 이유현의 변화는 김이석과 김대우의 부상, 그리고 한국영의 이적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강원의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유현은 자신의 변화가 공여지책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는 7월 이후부터 김강국과 강원의 중원을 책임졌다. 수비적 강점을 발휘하며 상대 패스 흐름을 차단했고, 팀 수비와 공격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나아가 풀백 본능을 살려 공간 커버 능력까지 뽐내며 강원 전술에 유연성을 더했다. 시간이 지나 강원 중원에 숨통이 트이자 이유현은 다시 풀백으로 복귀했다. 멀티 플레이어 기질을 십분 발휘해 위기의 팀을 구원하는 시즌을 보낸 이유현이었다. 강원은 이유현의 완전 영입을 결정했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최준과 이유현의 사례는 K리그1에서 선수의 팔방미인 기질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수비력이 약한 센터백이나 공격력이 부족한 윙어들이 마지못해 맡던 포지션으로 여겨졌던 풀백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현대 축구에서 풀백은 단순히 측면을 지키는 선수가 아니다. 현명한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중원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소화하는 포지션으로 진화했다. 최준과 이유현의 준수한 활약은 팀 전술의 다양성을 넓혔고, 다른 K리그 풀백들에게 무궁무진한 비전을 제시했다.



Topic 2

감독 교체 이후 성장세

feat. 울산 & 대전

울산과 대전은 시즌 도중 감독 교체라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와중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술적 발전을 보였다.

울산은 홍명보 전임 감독의 지도 아래 안정적인 팀 운영과 선수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K리그1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전술적 다양성과 유연성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존재했다. 김판곤 감독은 부임 이후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전술적 디테일을 강화하며 팀의 성장을 촉진했다. 김판곤 감독은 전방 압박의 강도를 더 높였고, 빠른 공격 전환을 주입해 울산의 경기 템포를 크게 변화시켰다.

김판곤 체제의 울산은 전술적으로는 윙어를 활용해 상대 빌드업을 중앙으로 유도했다. 그리고는 미드필더들의 대인 방어를 통해 상대 공격수를 효과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새로이 도입했다. 데이터상의 변화는 미세했지만, 경기력에서 질적 개선은 확연하게 드러났다. 선수들의 룰은 명확하게 구분됐고, 덕분에 조직적 움직임이 강화돼 더 단단해진 경기력을 보여준 울산이었다.

대전은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이 이유로 감독 교체가 진행됐다. 이후 대전은 새로운 전술적 접근을 통해 한층 균형 잡힌 경기를 선보였다. 마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짜 9번 전술은 대전의 후반기 반등을 이끌었다. 마사는 전방의 고정된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전방과 미드필드 사이를 오가며 다채로운 역

을 수행했다. 상대 수비 라인을 교란하고,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대전은 마사의 움직임에 따라 김준범과 최건주 등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침투하거나 역으로 넓게 벌리는 공격 옵션을 가져갔다. 상대 수비로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전술적 유연성은 상대의 대인 방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나아가 중원에서 점유율 상승에도 기여했다. 마사는 짧은 패스와 드리블로 압박 상황에서도 소유권을 유지하는 능력을 줄곧 발휘했다. 공격의 중추적이었던 마사는 대전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톱니바퀴 구실을 했다. 대전의 중원에서는 이순민과 밥신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 두 선수는 강한 압박과 대인 방어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냈고, 공격 전환 시에는 빠르고 정확한 패스로 팀의 역습을 도왔다.

대전은 7월의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했다. 하지만 8월의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획득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던 김천과 수원FC를 상대로 거둔 1승 1무는 팀의 자신감을 끌어올렸으며, 강등권 라이벌이었던 인천과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승리는 팀의 전환점이 됐다. 이후 파이널 B에서 무패를 기록한 대전은 목표했던 잔류라는 결실을 맺었다.

대전은 감독 교체 이후 이전보다 견고한 조직력을 보여줬다. 특히 후반기에는 쉽게 패배하지 않는 팀으로 자리 잡았다. 후반기 대전의 퍼포먼스는 팀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좋은 사례였다. 울산과 대전의 변화는 K리그 전체의 전술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울산은 챔피언 클럽답게 선도적 축구 철학을 보여줬고, 대전은 도전자로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빚어냈다.



Topic 3

Back 3 & Back 4 트렌드

공격·수비 시 다른

2024년은 팀마다 각기 다른 접근 방식과 특색 있는 운용 전략이 돋보였다. Back 3와 Back 4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형국이었다. Back 3는 안정적 수비 구조와 폭넓은 커버를 통해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Back 4는 기민한 공간 커버와 유연한 전술 변화FH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Back 3를 채택한 팀으로는 대표적으로 인천·대구·대전이 있었다. 이들은 윙백을 수비에 가담시켜 Back 5 형태를 만들었다. 해당 구조는 수비 숫자를 확보함으로써 상대 공격이 갈망하는 '깊이'와 '넓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강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인천은 광주전에서 김건희·요니치·김동민의 센터백 라인과 윙백 정동운·홍시후가 프레싱·커버링·백런싱을 충실히 실행해 상대 공격을 봉쇄했다. 인천은 김천전에서 상대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어프로치'와 '슬라이딩'으로 대응하며 수비 안정성을 증명해냈다. 대구와 대전 또한 상대 공격의 전환 패스를 억제하며 Back 3 시스템의 강점을 극대화했다.

반면에 Back 4를 활용한 팀들은 수비 숫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칙적 접근을 시도했다. 포항은 미드필더와 연계를 통해 공간을 커버하며 Back 4의 약점을 보완했다. 오베르단·김종우 등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미드필더들이 공간을 뒤덮는 장면들이 이

를 증명한다. 포항은 공간을 일차원적으로 메우는 것을 넘어, 전환 패스까지 대비하여 수비 대형을 유지했다. '백런싱'까지 고려한 움직임이었다. 김천 또한 미드필더 서민우를 활용하여 상대의 넓이 공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서울은 풀백 자원인 최준을 미드필더로 기용하여 유사시 Back 5 형태로도 운영하며 독특한 슬라이딩을 선보였다.

공격적인 면에서도 특징이 존재했다. 대표적 예는 포항과 강원이다. 두 팀은 4-4-2 포메이션을 골조로 삼았는데 공격 시엔 변형 Back 3를 활용했다. 이러한 변형 포진은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반영하며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과 적진에서 공격 유연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포항은 공격 시 왼쪽 풀백 완델손을 전진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Back 4를 Back 3처럼 활용해 3-2-4-1 대형을 꾸렸다. 이로써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때, 수적 우위를 점하며 상대 압박에서 효과적으로 빠져나왔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활용한 패턴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 포항은 해당 패턴으로 공격 균형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방 두 명의 공격수 중 한 명이 중원으로 내려와 2선에 녹아들기도 했다. 덕택에 패스 옵션은 다각화했다. 여기서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의 포켓을 공략하려는 의도

가 자주 관찰됐다.

강원 또한 유사한 형태로 풀백을 활용하는 변형 Back 3를 형성했다. 오른쪽 풀백인 황문기의 진출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한 이기혁을 비롯한 Back 3의 정교한 패스와 템포 조절이 갖든 후방 빌드업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강원은 수적 우위를 중심으로 후방에서 중원으로 진출했다. 그러면서 템포를 낮춰 전방의 공격자들이 최적의 위치를 잡도록 기다렸다. 그 뒤엔 이상현·양민혁 등 공격적 자원들이 위치한 포켓과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형태로 득점 기회를 설계했다.

두 팀은 상대 수비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공격수들의 위치 선정과 연계 플레이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필요 시엔 롱 패스와 크로스를 활용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공격 옵션까지 생산했다.

2024시즌 K리그는 단순히 Back 3와 Back 4의 선택이 아니라, 두 전술을 팀의 정체성과 경기 맥락에 맞춰 입맛에 맞게 재해석했다. 각 팀이 보여준 전략들은 '수비'와 '공격'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넘어, 상황에 따라 끊임 없이 재구성하는 현대 축구의 본질을 담아냈다. Back 뒤에 새겨진 숫자는 단순하게 최종 수비 라인의 머릿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 팀이 찾은 창의적 해답의 표상이었다.



03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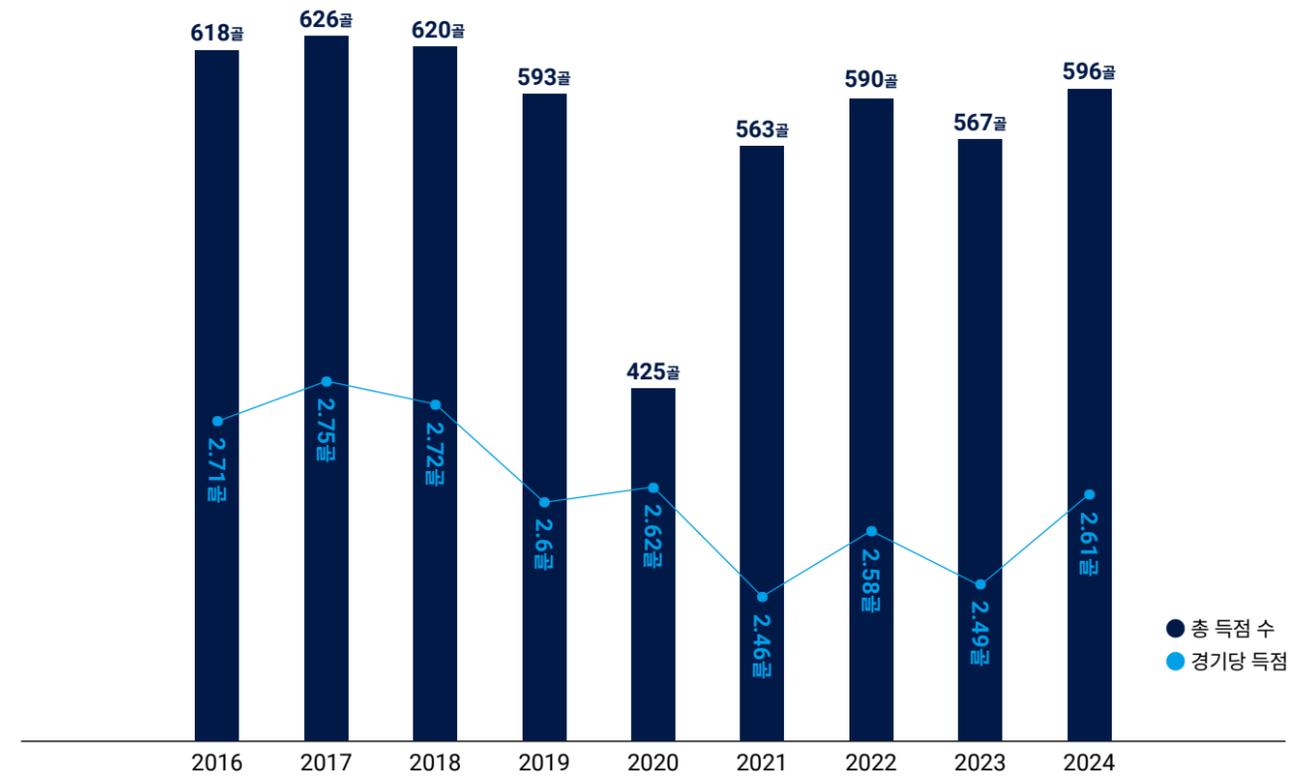
Goal Scoring

득점



최근 3년간 이어지던 저득점 추세가 종식됐다. 2024 K리그1에서는 총 596골이 터졌다. 2018년의 620골 이후 최다 득점이 만들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당 평균 득점이 처음으로 2.6골을 넘어섰다. 주목할 만한 데이터도 발견됐다. 지난 3년간 K리그1에서 집계된 시즌별 xG(기대 득점)와 실 득점(총 득점 - PK 득점)간의 차이다. 하단 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 득점과 기대 득점의 차이를 나타냈다. 2021년엔 기대 득점에 비해 실 득점이 상당히 저조했

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골로 이뤄졌어야 할 15개가량의 슛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뜻이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유사한 흐름은 이어졌다. 실 득점이 기대 득점보다 낮은 지점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4년에 데이터가 급변했다. 기대 득점과 실 득점의 격차가 과거와 180도 뒤바뀐 모습을 보였다. 실 득점 - 기대 득점의 값이 무려 +44.1에 도달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대략 48골이 상승했다는 의미였다. 수치가 이토록 급격하게 증대한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016~2024년간 득점 추이

	xG	실 득점	실 득점 - xG
2021	556.8	542	-14.8
2022	585.3	577	-8.3
2023	553.9	550	-3.9
2024	532.9	577	+44.1

GOAL SCORING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건, K리그가 전술과 기술의 동반 성장을 벗 삼아 세밀한 공격을 추구하는 리그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K리그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확한 패스 플레이를 요한다. 단순한 패스 성공률만으로는 세밀함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연관성이 긴밀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자.

주목해야 할 수치는 ‘중앙 및 공격 지역에서 전진 패스 성공률 증가’다. 해당 지표는 해마다 3~4%가량 신장했다. 중원과 적진에서 패스 성공 확률의 상승은 기술 향

상은 물론이거니와 경기 운영 방식, 즉 전술 트렌드가 변화했음을 반영한다.

전진 패스 성공률의 증가는 공격 전환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나아가 공격 전개 과정에서 더 많은 골을 생산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상대 압박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거나 하프 스페이스와 같은 요충지를 공략하는 데 있어 전진 패스 성공률의 향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2024년이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해로 기록된 원동력 중 한 가지를 전진 패스 성공률 증가로 꼽을 만하다. 높은 수준의 전진 패스 성공률은 공격수들에게 더 정교한 찬스를 제공한다. 특히 골문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략할 기회를 준다.

결정적 상황의 증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K리그가 보다 자기자기한 전장으로 변신했음을 체감한다. 찬스의 잦



적은 xG값으로 대량 득점을 창출해낸 올 시즌 K리그, 기대 득점 대비 44개 이상의 득점을 추가 생산했다

	중앙 지역 전진 패스 성공률	공격 지역 전진 패스 성공률
2022	68.5%	61.4%
2023	71.0%	65.6%
2024	74.1%	70.0%

은 생성은 자연스럽게 골 증가로 이어진다. 두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건, 축구의 기본 골자인 포메이션 트렌드의 변화다.

2023시즌과 2024시즌, K리그1 팀들의 수비 포메이션의 변화에서 의미 있는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 2024시즌은 2023시즌과 비교했을 때 Back 3 수비 라인을 기초로 활용하는 팀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2023시즌엔 Back 3를 활용하는 6개 팀 중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이널 B에 위치했다. Back 3의 활용 클럽들의 부진이 2024시즌 Back 4 포메이션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바라볼 수 있다.

Back 3는 수비 시 사실상 Back 5로 전환한다. 해당 구조에선 분명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Back 5는 한 명의 수비수를 더 배치함으로써 수비 진영에서 공간을 덮

는 범위가 확장된다. 측면 윙백 2명과 센터백 3명으로 구성된 라인엔 수비 간격을 더욱 촘촘히 유지할 수 있어 상대가 중앙 또는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상대가 넓은 포지셔닝으로 공격할 때도, 아군 윙백이 상대 윙어를 견제하면서 중앙의 수적 우위까지 지켜낼 수 있다.

또한 Back 5는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억제하면서도 수비 블록의 수직적 깊이까지 유지해낸다. 중앙 3명의 센터백이 라인을 조율하고, 측면 2명의 윙백이 상대 풀백과 윙어를 도맡는 와중, 동시에 중원에 위치한 미드필더가 전방 압박을 수행하며 수비 간극까지 메우는 구조가 형성된다. 동료들 간 긴밀한 상호작용 덕분에 수비 조직은 분산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된다. 상대로서는 득점 기회 창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023시즌		2024시즌	
구단	수비 포메이션	구단	수비 포메이션
울산	4-2-3-1	울산	4-2-3-1
포항	4-2-3-1	강원	4-2-3-1
광주	4-4-2	김천	4-3-3
전북	4-2-3-1	서울	4-4-2
인천	3-4-3	포항	4-2-3-1
서울	4-1-4-1	수원F	4-1-4-1
대구	3-5-2	제주	4-4-2
대전	3-4-3	대전	3-5-2
제주	3-4-3	광주	4-4-2
강원	3-4-3	전북	4-2-3-1
수원F	4-2-3-1	대구	3-4-3
수원	3-4-3	인천	3-4-3

그런데도 2024시즌은 상술한 이점들을 지닌 Back 3(혹은 Back 5)를 포기하는 추세가 늘었다. Back 4가 확실히 대세였다. 전방에 무게 중심을 둔 Back 4는 후방에 무게 중심을 둔 Back 3와 다르게 득점 기회 창조가 용이하다. 물론 Back 4도 약점은 있다. Back 4는 수비 무게 중심을 후방보다는 전방에 실어놓기 때문에, 상대가 아군 수비 지역으로 진입하는 횡수를 줄이는 데에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상대가 아군 진영 진입에 성공하고 득점 기회를 생성했을 때엔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Back 3에 비해 떨어진다. 이 명제는 데이

터로도 입증 가능하다. 2024시즌의 경우 xG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지만, 득점 전환은 그만큼 줄어들진 않았다.

정리하자면, 2024년은 다수의 K리그1 클럽이 공격적 경기 운영을 채택한 시즌이었다. 이런 선택들이 하나둘씩 모여 리그 전반의 득점력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상대를 하프 라인 이상에서 강하게 압박해 볼을 탈취하고 속공을 가하는 시퀀스의 증가 또한 리그 득점 증가와도 연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Set Plays

세트 플레이



2024시즌 K리그1에서는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총 146골이 터졌다. 직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 3골이 더 나왔다. 지난 3년 중 그 어떤 시즌보다도 많은 세트 플레이 득점이 나왔다.

올해 세트 플레이를 가장 잘 활용한 팀은 김천이다. 전체 53골 중 무려 19골을 세트 플레이로 완성시켰다. 팀 득점의 3분의 1 이상을 해결했다. 그 중 12골을 프리킥에서 만들어 낸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김천의 조직력과 정확한 킥 능력 등의 시너지가 연출한 하모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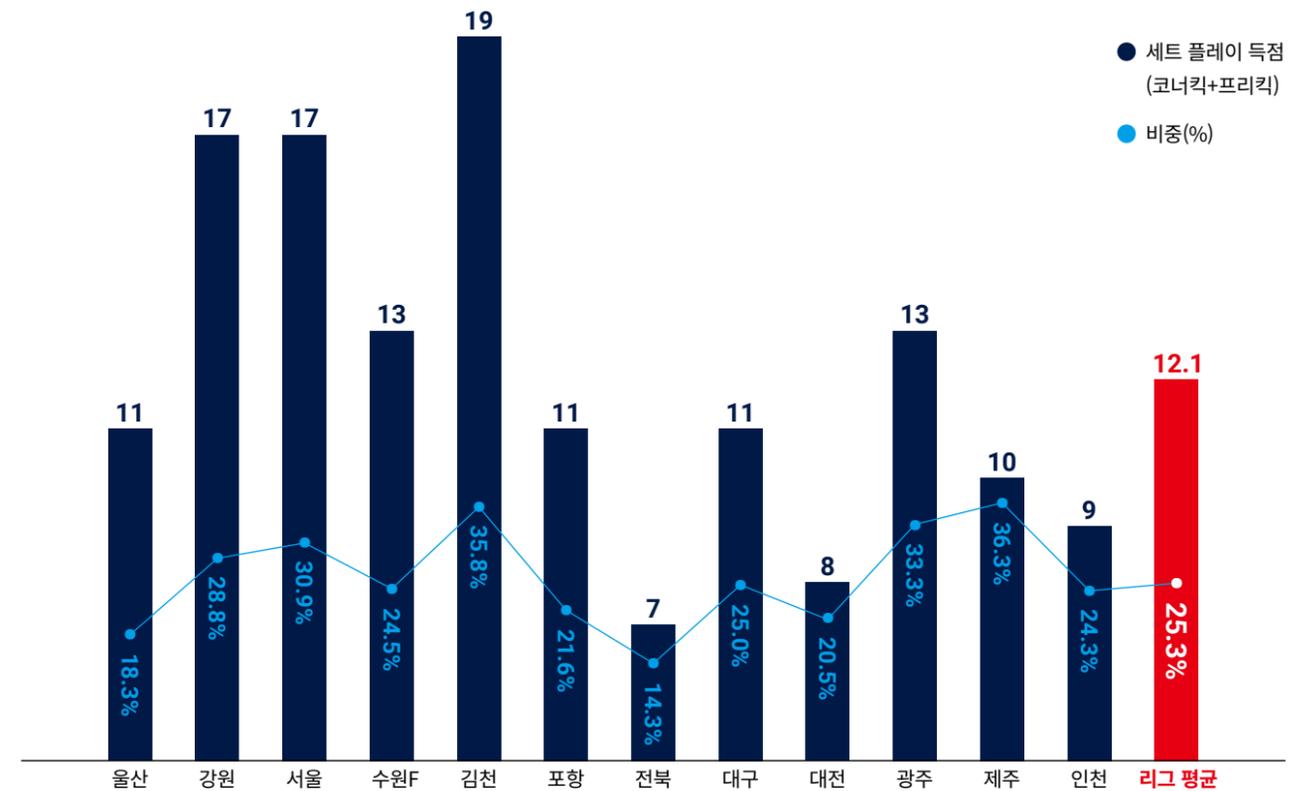
일단 김천은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위협적 볼을 꾸준히 제공하는 키키를 활용했다.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꾸준히 모여드는 구단의 특성상 세트 플레이 스페셜리스트는 항상 준비됐다. 이동경과 김대원 등은 정확한 킥을 구사하는 자원들이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직접

슛 혹은 크로스를 선택했고, 타깃 지점에 배달되는 킥은 득점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리고 김천의 프리킥 득점은 여러 유형 속에서 발생했다. 아주 창의적이진 않았고, 몇 가지 패턴을 반복해 실행했다. 물론 패턴 안에서도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옵션들만큼은 넉넉했다. 직접 슛뿐만 아니라 빠르게 재개하는 패스 플레이와 크로스 등을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시도함으로써 상대 수비의 집중력을 무너뜨렸다.

실제로 프리킥 득점 유형 중, 직접 슛으로 인한 득점, 머리를 맞추고 연결하는 득점, 세컨드 볼 획득에 이은 중거리 득점, 자책골 유도 등 다채로운 방식의 득점이 태어났다.

포항은 세트 플레이 수비에서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팀이었다. 49실점 중 20실점을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허용했다. 2024시즌 기준으로 K리그1에서 세트 플레이



2024 K리그1 세트 플레이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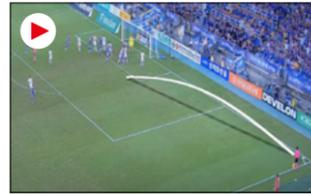
SET PLAYS

에 가장 취약한 팀으로 남았다. 포항은 대인 방어 수비를 채택하는 편인데, 선수 개개인의 마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보였다. 특히 상대가 창의적 움직임으로 아군 진영을 흔들 때, 포항 선수들이 각자의 마크를 놓치거나 애매한 위치에 서는 장면이 빈번하게 노출됐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에 상대를 자유롭게 놔두는 원인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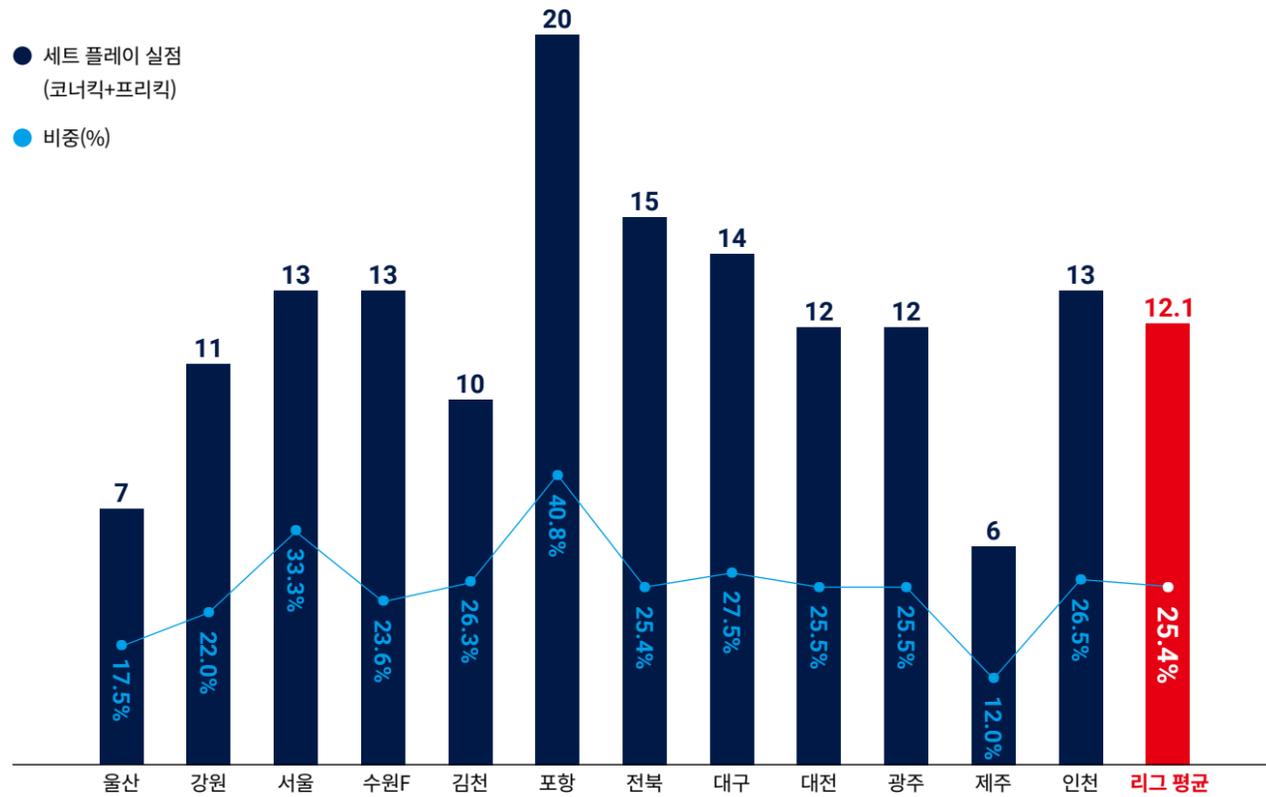
세컨드 볼 경합에서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세트 플레이의 세컨드 볼을 노릴 때, 포항의 대인 마크가 상술했듯 흐트러지는 바람에 세컨드 볼



세트 플레이에서 최다 득점을 생산해낸 김천의 프리킥



포항은 세트 플레이 수비 시의 집중력만 높인다면 실점을 대량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24 K리그1 세트 플레이 실점

에서도 적군이 방해 없이 공을 잡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다. 혼전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는 포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향후 포항은 선수들로 하여금 각자의 마크를 정확히 뒤쫓을 수 있도록 세밀한 구분이 필요해 보였다. 세컨드 볼 상황에서 아군 유닛의 집중력과 적극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점 패턴은 반복될 공산이 크다. 40.8%라는 세트 플레이 실점 비율 수치는 단순한 실수의 집합이 아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리그 초반 선두권에 진입하며 호성적을 기대했던 포항

으로서는 중·후반부에 잦은 세트 피스 실점으로 모멘텀을 잃어버려 아쉬움이 더 컸다.

그래도 포항은 충분히 좋은 요인들을 지녔다. 세트 플레이가 진행되는 시간은 전체 경기 시간 중 극히 일부다. 오히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수비 문제점을 다잡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포항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실점 비율이 다른 어떤 팀보다도 낮다. 즉, 현재의 장점을 유지하며 세트 플레이 실점만 개선해내면 차기 시즌 포항의 실점률은 수직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Counterattack

역습



팀 명	다이렉트 스피드	평균 패스 횟수
김천	11.0 km/h	3.9회
대전	10.5 km/h	3.7회
제주	10.3 km/h	3.6회
대구	10.3 km/h	3.5회
전북	9.9 km/h	4.3회
수원FC	9.8 km/h	4.3회
인천	9.4 km/h	4.1회
강원	9.0 km/h	4.5회
서울	8.8 km/h	4.4회
포항	8.7 km/h	4.6회
울산	8.3 km/h	4.8회
광주	7.3 km/h	4.6회
2024 리그 평균	9.4 km/h	4.1회
2023 리그 평균	12.7 km/h	3.8회
2022 리그 평균	13.1 km/h	3.3회

2024 K리그1 평균 다이렉트 스피드 및 평균 패스 횟수

K리그는 전반적으로 역습의 비중이 낮아지는 듯한 추세다. 시퀀스당 평균 패스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0.3회 정도 늘어났고, 다이렉트 스피드는 3km/h 이상 느려졌다. 2022년도의 수치까지 참고하면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다이렉트 스피드는 약 4km/h 둔화했고, 평균 패스 횟수는 0.8회가 증가했다.

2024년은 조직된 공격-수비 전환-조직된 수비-공격 전환으로 순환하는 축구의 4가지 국면 중 K리그가 점차 공격 전환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간다는 걸 보여준다. 공격 전환의 증대가 시사하는 바는 역습보다는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공격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물론 여전히 역습에 초점을 둔 클럽들도 적잖게 존재했다. 대전·대구·인천이 대표적이었다.

팀	평균 GK-최종 수비 라인 간격	평균 최종 수비 라인 높이
광주	27.7m	38.3m
강원	27.2m	37.0m
서울	26.7m	36.3m
김천	24.8m	36.2m
울산	24.4m	36.1m
수원FC	24.5m	35.8m
제주	25.0m	35.3m
인천	25.2m	35.0m
전북	25.2m	34.6m
대구	25.5m	34.1m
포항	23.4m	33.4m
대전	22.7m	32.8m
리그 평균	25.2m	35.4m

대전

데이터는 대전이 역습 그 자체였음을 보여준다. 시퀀스 당 다이렉트 스피드가 10.5km/h로 K리그 12개 구단 중 두 번째로 빨랐다. 동시에 평균 패스 횟수는 3.7회로 최소치에 근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공격 상황에서 가장 적은 숫자의 패스로 적진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달하겠다는 대전의 의지를 표출한다. 대전에는 카운터어택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충분했다.



발빠른 공격 자원들을 활용해 상대의 배후 공간을 공략하는 대전의 역습

2024시즌 집계된 김인균과 김승대의 최고 속도는 약 34km/h였고, 레안드로는 36km/h까지 넘어섰다. 가속력까지 고려한다면, K리그의 어떤 수비수라고 한들 이들을 쉽사리 막진 못했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언급한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24~28회의 스프린트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수비수로서는 악몽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었다.

역습에서 상대 배후 공간을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격 시나, 수비 시나 아군 라인을 최대한 낮추고 적군을 끌어들이는 게 핵심이다. 대전은 K리그에서 32.8M라는 가장 낮은 최종 수비 라인을 형성했다. 깊은 수비 라인은 대전이 걱정하고 카운터어택에 치중했음을 방증한다.

대구

대구 또한 K리그에서 역습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팀이다. 대구는 리그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10.3km/h의 다이렉트 스피드와 가장 적은 평균 패스 횟수(3.5회)를 기록했다. 해당 데이터는 보다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구는 단순한 롱 볼 위주의 역습보다는 거쳐 가는 빌드업을 통해 속도와 안정성을 조화롭게 추구했다. 대구의 역습은 공을 탈취한 후 중원과 측면을 빠르게 연결해 상대 수비가 재정비하기 전에 공격을 전개하는 형



대구는 짧고 빠른 패스를 활용함으로써 상대 지역으로 빠르게 전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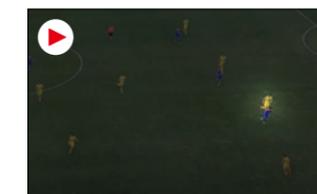
태였다. 볼을 소유한 선수는 짧고 정확한 패스를 통해 동료들을 활용하거나, 적절한 순간 직접 전진하며 공격 흐름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세징야는 창의적 패스와 드리블로 역습의 연결 고리가 돼 위협도를 배가했다. 대구는 짧은 패스를 혼합해 전방으로 전환 속도를 극대화했고, 동시에 높은 다이렉트 스피드를 유지했다. 세징야의 볼 관리 능력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세징야의 대구의 카운터어택에서 언제나 주춧돌이었다.

세징야를 위시하는 대구의 역습은 단순히 속도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상황에 여러 선수를 참여시켜 상대의 공간을 여러 갈래로 공략했다. 대구만의 효율적 카운터어택이 지속성을 갖는 까닭이다.

인천

인천의 역공은 대전·대구와는 다소 달랐다. 데이터부터 그렇다. 다이렉트 스피드와 시퀀스 당 평균 패스 횟수에서 리그 평균과 정확히 같은 값을 가졌던 인천이다. 지난 3년, 인천은 매 시즌 리그 평균보다 빠른 다이렉트 스피드와 적은 시퀀스당 평균 패스 횟수를 통해 전형적 역습 축구를 구사하며 경쟁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4시즌엔 어느 부문에서도 평균을 벗어나지 못하며 기존의 강점을 잃어버렸다. 신임 감독이 중도 부임하며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생긴 점도 평균값을 벗어나지 못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과거 전형적인 역습 축구를 자랑하던 인천은 현재 플레이 스타일 변화 간의 과도기에 머물러있다

다. 본래 탈압박 후 재빠른 배후 공간 공략은 인천의 트레이드마크였다. 하지만 2024년은 속도와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 소유 기반의 후방 빌드업을 많이 시도했다. 이러한 변주 과정에서 전개가 느려졌고, 이게 역습의 날카로움을 무더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은 카운터어택 데이터가 리그 평균 수준에 머물자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들이 남긴 숫자는 단순히 스타일 변화의 실패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팀이 고유의 색깔을 잃었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 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Pressing

압박



과거 전방 압박의 주된 방식은, 적군 센터백이 공을 소유했을 때 전방 한두 명의 공격수들을 활용해 공 전개를 측면으로 유도한 뒤 상대를 고립시키는 형태였다. 간결하면서도 효과적 방식으로써 상대 공격 전개를 강제로 측면에 한정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2024년은 몇몇 클럽들이 보다 정교하고 창조적 방식으로 전방 압박을 사용하며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울산은 감독이 바뀌자 팀의 플레이 스타일도 변모했다. 전방 압박을 중앙에서 재해석했다. 그들은 상대 미드필더를 대인 마크로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접근은 적군 빌드업을 측면이 아닌 중앙으로 유도한다는 점에

서 차별화된다. 울산은 상대 후방에서 패스 옵션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미드필더가 좁은 공간에서 공을 소유하도록 닛을 닛다. 이렇게 만들어진 압박 상황은 상대에게 위험을 감수한 플레이를 강제했다. 그렇게 울산은 중원의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는 장면을 빈번하게 연출하며 역습 전환 기회를 극대화했다. 울산의 신선한 접근법은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대인 마크에서 기인한다. 해당 전술을 수행하려면 미드필더들의 뛰어난 체력, 거리 유지, 압박 타이밍 계산 등의 역량이 필수적이다.

팀	평균 PPDA	평균 허용 슛(회)
울산	10.1	11.4
김천	10.4	10.2
광주	10.6	10.5
서울	11.0	10.7
제주	11.7	12.9
대전	12.0	13.1
포항	12.1	12.1
전북	12.4	12.7
수원FC	12.7	10.7
대구	13.2	12.7
강원	13.3	9.8
인천	14.7	11.5
리그 평균	12.0	11.5



특정 포메이션을 상대 시, 상대를 중앙으로 유도하는 울산의 압박 방식

PRESSING

광주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을 수행했다. 속도와 강렬함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경우였다. 광주는 상대가 공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직선적으로 빠른 압박을 가해 패스의 정확도를 떨어뜨렸다. 의사 결정 시간을 빼앗은 것이다. 또한 센터백과 풀키퍼가 만들어가는 초기 빌드업 단계를 목표로 삼아 빌드업의 안정성을 흔들어보기도 했다. 상대 패스 의도를 읽고 사전에 타격을 가하는 방법론이었다.

강원은 보다 계산한 형태의 압박을 선보였다.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움직였던 강원은 선불리 전진하기 보다는 상대 미드필더의 움직임과 센터백의 패스 방향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걸 우선했다. 그러고는 패스 길목을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강원 전방에 위치한 두 명

이 공격수는 상대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로 진입해 패스 길목을 차단했다. 이들의 조직적 압박은 2선 미드필더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졌다. 적의 패스 선택지를 줄이는 환경을 조성해 상대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실수를 저지르게 압박했다. 이것이 곧 강원의 역습으로 연결됐다. 겉으로 보기에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강원 스타일의 압박은 실제 PPDA 수치에서도 리그 11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은 높은 위치에서 차단을 시즌 내내 성공시키는 유의미한 자료를 남겼다. K리그에서 전방 압박에 대한 전술적 접근은 각 팀의 철학과 경기 운영 전략에 따라 이처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광주는 직선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의사 결정 시간을 빼앗는다



강원은 덮을 놓고 상대의 진입을 기다린다



Build up

빌드업



파이널 A와 파이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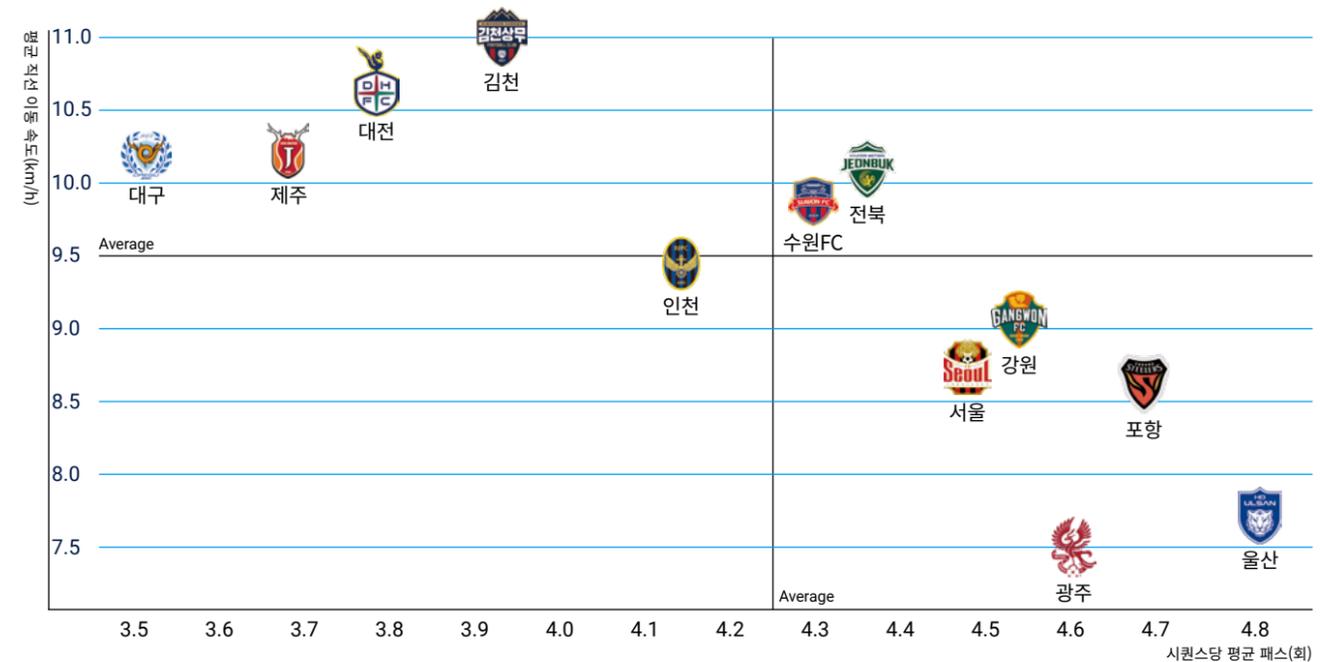
2024시즌 K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널 A의 울산·포항·서울·강원과 파이널 B의 대구·대전·제주는 상반되는 전술적 접근을 취했다. 그들의 선택은 리그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파이널 A 팀들은 대개 많은 패스와 느린 다이렉트 스피드를 기록했다. 공을 소유하며 점진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 선호했다는 뜻이다. 이들은 상대 수비를 풀어내기 위해 정교한 패스를 통해 공격을 조직했다. 또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창출하려 했다. 느린 다이렉트 스피드는 빠른 전개보다는 상대 수비가 정렬할 시간을 주지만 차근차근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 안정적·조직적 플레이를 유지한 결과, 꾸준한 성과를 냈다.

반면 파이널 B 팀들은 빠른 다이렉트 스피드와 적은 패

스로 상대를 교란시켰다. 대구·대전·제주는 속도가 뒷받침되는 카운터어택을 통해 공격을 전개했다. 수비에서 공 소유권을 되찾은 후 몇 번의 패스로 공격을 시도하는 형태로 강점을 드러냈다. 이들은 상대가 수비를 정렬하기 전에 재빠른 공격을 이어가 결과를 가져갔다. 다만, 높은 수준의 공격 전개를 주기적으로 이어가는 데엔 어려움이 있었다.

전술적 특성은 리그 순위에도 반영됐다. 파이널 A 팀들은 안정적·조직적 방법론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상대 진영을 효과적으로 뚫어낸 것이다. 파이널 B 팀들은 빠른 공격 전환과 직선적 전개로 승점을 추가하긴 했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공격력의 부족으로 최종 순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2024 K리그1 시퀀스 매트릭스

김천

리그 3위를 차지한 김천이 파이널 B 팀들과 유사한 데이터 지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까닭 중 한 가지는 팀 구성과 전술적 선택에서 찾을 수 있다. 김천은 빠른 플레이와 적은 패스를 통해 다이렉트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스타일을 추구했다. 이런 선택의 배경은 김천이 군 복무 중인 선수들로 구성된 특수한 클럽이기 때문이다. 입대와 제대라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김천은 매년 큰 폭의 스쿼드 변동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선수들의 조직력과 숙련도를 유지하기에 까다로운 환경이다. 현

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세밀한 빌드업보다는 간단하고 효과적 플레이를 선호하게 된다. 짧은 시간 안에 구성원의 힘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관점에서는 심플한 전술이 아무래도 효율적이다.

김천이 비교적 젊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것이 전술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K리그1에서 18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들의 평균 나이를 분석했을 때, 김천은 리그에서 가장 낮은 24.9세를 기록했다. 김천은 10.4의 PPDA 수치를 기록하며 선두 울산 다음으로 강한 압박을 가했다. 젊은 선수들의 체력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강력한 압박을 가해 소유권을 탈취하고 이후 빠른 속도로 공격을 전개하는 게 김천의 매커니즘이었다.

이렇게 김천은 다이렉트 스피드가 빠르고 패스 횟수가 적어졌다. 파이널 B 팀들과 비슷한 데이터가 기록된 원인은 김천이 처한 환경에서 비롯됐다.



상대의 포켓을 빠른 타이밍에 공략하는 김천의 빌드업

광주

2024년 광주는 시퀀스 매트릭스에서 독특한 팀 컬러를 드러냈다. 시퀀스당 최다 평균 패스 횟수(4.6회)와 최장 볼 소유 시간(14.5초)을 기록한 동시에, 가장 느린 다이렉트 스피드(7.3km/h)를 보여주며 유례없는 경기 운영 방식을 확립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광주가 단순히 공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압박을 능동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공 보급과 패스 플레이를 통해 압박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생성된 배후 공간을 사용해 상대 진영으로 전진을 꾀했다. 해당 시퀀스는, 느린 템포의 정교한 빌드업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만들어진 구역을 기민하게 공략하는 광주의 팀 철학을 보여준다. 높은 패스 빈도와 점유율은 안정적 경기 운영이라는 1차적 과제를 넘어 상대의 약점까지 찌르겠다는 ‘광주의 사고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근거였다.

2024시즌의 광주는 플레이 스타일을 통해 많은 팀들에 난제를 제시했다. 그들은 압박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창의적 축구를 선보였다. 광주의 게임 모델은 유의미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클럽의 철학을 상징한다.



일명 ‘포지션 플레이’를 활발히 하며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광주의 빌드업 구조

최대 기대 위협(xT) 선수, 안데르손

선수	포지션	총 누적 xT
안데르손	WF/AM	7.7
완델손	WB	5.4
최준	FB	5.1
황문기	WB	4.8
이용	FB	4.8
세징야	WF/AM	4.7
정호연	FB	4.6
이명재	FB	4.3
황재원	WB	4.3
신광훈	WB	4.2

xT 랭킹 상위 10명 중 8명이 풀백·윙백이다. 그런데도 윙어이자 공격형 미드필더로 뛴 안데르손이 1위를 차지한 점이 차별화된다. 안데르손은 특정 구역에서만 뛰어난 기여를 한 게 아니다. 공격 전개 전체를 관장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일반적으로 풀백·윙백들은 상대가 측면으로 전개를 강제하는 압박 상황 속에서 패스와 빌드업을 수행한다. 그렇게 xT 수치를 누적한다. 하지만 안데르손은 상대



안데르손은 올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되었다

박스 근처의 위협적 공간에서도 패스와 빌드업을 수행했다. 안데르손의 전진성은 xT 영역을 주도하던 기존 풀백들마저 훌쩍 넘어섰다. K리그 대표 윙백 중 한 명인 완델손이 5.4의 xT 수치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는데, 안데르손은 완델손보다 2.3이나 더 높은 데이터를 남겼다. 완델손 아래로 숫자가 대동소이한 걸 보면 안데르손의 그것은 유독 더 커 보인다.

안데르손은 클래식 윙어로만 기능한 게 아니라 여러 위치에서 팀의 공격을 이끌어갔다. 좌·우·중앙을 구분하지 않고 그라운드를 폭넓게 활보했다. 와중 전방을 향하는 드리블·패스 등으로 팀의 공격을 능동적으로 설계했다. 마무리도 훌륭했다. 특히 공격 전개 과정을 집중해서 살폈을 때, 안데르손은 낮은 xT 지역에서 높은 xT 지역으로 볼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그야말로 탁월했다.

Goalkeeping

골키퍼



2024시즌 골키퍼 데이터에서는 역설적 지표가 발견됐다. 'xGOT - 실제 실점 수'의 이야기다. 이 지표는 골키퍼가 슈트를 얼마나 잘 막아내는지를 나타낸다. 골키퍼가 실제 실점보다 더 많은 xGOT를 상대 슈트를 막는 과정에서 기록했다면, 이는 해당 골키퍼가 평균 이상의 실력을 보여줬다는 의미다. 예시로 xGOT가 10인데 실제 실점이 7이라면, 골키퍼가 3골을 '세이브'했다고 볼 수 있다. K리그1 팀들을 해당 수치대로 순위를 매겨봤다.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상위 6개 팀 중 파이널 B 팀이 4개나 스며들었다. 아울러 하위 5개 팀 중엔 파이널 A 팀이 4개나 포함됐다. 이는 골키퍼의 퍼포먼스와 팀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때문에 팀의 수비 구조, 전술적 접근 방식, 수문장에게 주어진 미션 등이 골키퍼 퍼포먼스 데이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로 들여다봐야 한다.

팀	xGOT	xGOT - 실점
대전	54.8	7.8
대구	53.7	2.7
김천	40.0	2.0
제주	51.9	1.9
서울	40.9	1.9
인천	49.9	0.9
광주	45.5	-1.5
울산	36.3	-3.7
수원F	51.3	-3.7
전북	52.9	-6.1
포항	41.9	-7.1
강원	43.1	-10.1



유난히 탑클래스 골키퍼들의 활약이 많았던 올해지만 팀의 성적과는 쉬이 비교할 수 없다

일단 파이널 B 팀이 상대적으로 높은 xGOT - 실점 수치를 기록한 건, 이들이 리그에서 위협적 슈트를 더 많이 허용했을 가능성이 커서다. 파이널 B 팀이라면 수비 조직이 약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외종 골키퍼들이 술한 세이브를 해내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다. 파이널 A 팀들의 상당수는 xGOT 하위권이다. 이들은 견고한 수비 구조를 유지한 덕에 상대적으로 적은 슈트를 내줬지만, 적군 슈트의 질이 높았거나 특정 순간 결정적 세이브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골키퍼의 역할 변화도 분석 포인트다. 과거 골키퍼는 슈트 방어에만 집중하는 룰이었다면, 최근에는 빌드업이나 박스 바깥에서의 액션, 즉 '스위퍼 키퍼'로서 역할도 요구 받는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 기여도 또한 점차 중요해진다 소리다. 골키퍼 트렌드의 변화는 해외뿐 아니라 K리그에서도 두드러진다. 특정 골키퍼가 높은 xGOT - 실점 수치를 기록하지 못했더라도, 팀의 빌드업 안정화나 최종 수비 라인 컨트롤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을 가망성도 살펴봐야 한다.

2024시즌은 골키퍼 퍼포먼스와 팀 수비 스타일 간의 상관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xGOT - 실점 수치가 좋은 팀들이 반드시 높은 순위에 오르지 않았던 점은, 골키퍼를 포함한 수비 시스템이 팀의 전체 퍼포먼스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준다. 골키퍼가 시즌 중 교체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때문에 특정 골키퍼의 성과보다는, 팀의 수비 체계 전반이 문지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2024시즌은 K리그 클럽들이 수비 조직과 골키퍼 운용 방식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시점이었다. 파이널 A 팀들은 전방 압박을 포함한 전체적 수비 시스템으로 수비 효율성을 끌어올려 xGOT를 낮췄다. 반면 파이널 B 팀들은 더 큰 위기 상황에서 수문장의 방어력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골키퍼 관련 데이터에 대한 고찰은 각 팀이 다가올 시즌에서 전반적 수비 시스템과 GK 운용 전략을 어떻게 손질할지 대한 연구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점 수를 기준으로 골키퍼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04

TEAM PROFILES

K리그1	K리그2
울산	안양
강원	충남아산
김천	서울E
서울	전남
수원FC	부산
포항	수원
제주	김포
대전	부천
광주	천안
전북	충북청주
대구	안산
인천	경남
	성남

이 장의 기록은 K리그1 정규라운드(38경기), K리그2 정규라운드(36경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팀별 페이지 상단의 QR코드를 인증하면 KEY FEATURES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HD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3년 연속 K리그1 왕에 등극했다. 다사다난한 시즌이었지만, 오래도록 다져온 팀 스피릿이 모든 걸 방어했다. 팀 데이터상으로도 가장 '챔피언 클럽'이었다.

감독 | 김판곤

생년월일 | 1969. 05. 01.

김판곤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9	3	1
통산	19	10	17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21승 9무 8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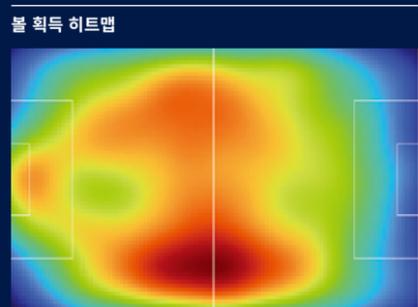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조현우	36	3,818	40	14
DF	강민우	5	272	0	0
DF	김기희	22	2,116	0	0
DF	김영권	21	1,964	2	0
DF	김주환	2	118	0	0
DF	설영우	9	793	0	1
DF	심상민	9	628	0	0
DF	이명재	28	2,724	0	3
DF	임종은	24	1,986	0	0
DF	장시영	18	765	1	0
DF	최강민	21	782	1	0
DF	홍재석	2	51	0	0
DF	황석호	18	1,373	0	0
MF	강윤구	20	964	2	1
MF	고승범	28	2,414	4	3
MF	김민우	19	1,033	2	2
MF	김민준	6	256	1	0
MF	김민혁	14	714	0	0
MF	루빅손	22	1,813	7	5
MF	마테우스	12	596	0	0
MF	보아니치	26	1,783	2	3
MF	아라비제	7	431	2	0
MF	아타루	29	1,709	5	3
MF	염원상	26	1,660	4	2
MF	원두재	5	371	0	0
MF	윤일록	26	2,226	0	1
MF	이규성	25	1,566	0	1
MF	이동경	8	611	7	5
MF	이재용	1	28	0	0
MF	이청용	23	1,091	0	4
MF	정우영	8	457	0	0
MF	켈빈	10	472	1	0
FW	김지현	10	494	1	0
FW	마틴 아담	10	577	3	0
FW	윤일록	2	44	1	1
FW	이동경	12	687	4	1
FW	주민규	33	2,549	10	4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9.7세 1st	71회(6th)	0회	0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주민규	10골	32회	12.1골
루빅손	7골	16회	4.6골
이동경	7골	14회	2.6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루빅손	5회	20회	76회
이동경	5회	14회	29회
주민규	4회	24회	6회

AVERAGES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0.1 1st	34.2m 3rd
활동량	스프린트
116.7 km 2nd	188.9 회 10th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3골(5%)	2골(3%)	62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50.4골 1st	62.0골 1st	41.0골 7th	36.4골 12th

- ### KEY FEATURES
- 득점자만 17명이었을 만큼 다양한 루트.
 - 빌드업 상황에서 중앙 공격수를 최대한 사용.
 - 마지막 달 활동량은 무려 13km. 끊임없이 움직였던 고승범.
 - 수비 시엔 4-2-2-2 골격으로 적군 압박.



강원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반전의 시즌. 2023년 K리그 승강 PO까지 갔던 클럽이 2024년엔 2위를 차지했다. 윤정환 감독의 지도력과 양민혁·이상현·황문기 등의 활약이 하모니를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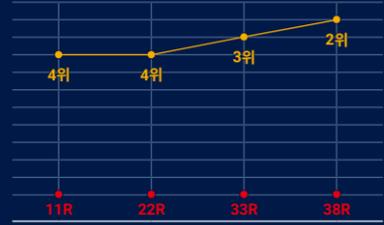
감독 | 윤정환

생년월일 | 1973. 02. 16.

윤정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9	7	12
통산	51	44	41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9승 7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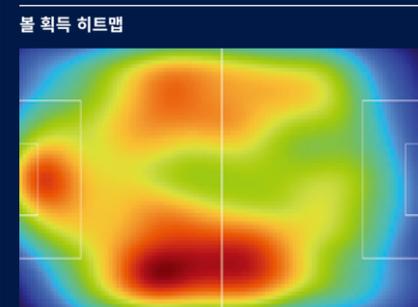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박청호	9	917	19	1
GK	이광연	28	2,821	37	6
DF	강투지	32	2,965	1	2
DF	김영빈	25	2,346	1	0
DF	김우석	4	143	0	1
DF	송준석	22	1,351	1	0
DF	신민하	20	359	0	0
DF	유인수	28	1,822	2	4
DF	윤석영	17	1,533	2	2
DF	이유현	25	1,967	0	1
DF	이지솔	6	325	0	0
DF	조현태	3	41	0	0
MF	강지훈	1	52	0	0
MF	김강국	32	2,120	0	1
MF	김대우	14	952	1	2
MF	김동현	12	937	0	0
MF	김이석	18	1,277	2	2
MF	이기혁	35	3,209	0	4
MF	이상현	37	2,813	13	6
MF	카미야	10	302	0	0
MF	한국영	6	325	0	0
MF	황문기	36	3,523	2	7
FW	가브리엘	13	585	0	0
FW	갈레고	4	151	0	0
FW	김경민	11	407	2	0
FW	김형진	2	44	0	0
FW	박경배	1	12	0	0
FW	야고	18	1,671	9	1
FW	양민혁	38	3,306	12	6
FW	헬링턴	3	253	0	0
FW	정한민	14	530	3	1
FW	조진혁	27	1,235	2	1
FW	진중서	6	152	1	0
FW	최성민	1	4	0	0
FW	코바체비치	15	1,111	4	0
FW	하지치	3	60	0	0
FW	헨리	10	445	1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4.5세 11th	77회(2nd)	1회	0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이상현	13골	27회	10.7골
양민혁	12골	27회	6.5골
야고	9골	16회	5.5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황문기	7회	20회	119회
양민혁	6회	31회	66회
이상현	5회	25회	53회

AVERAGES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3.3 11th	29.2m 11th
활동량	스프린트
116.7 km 3rd	208.5 회 2nd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2골(3%)	3골(5%)	62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6.3골 3rd	54.5골 2nd	40.9골 8th	43.3골 8th

- ### KEY FEATURES
- 공격 시 3-2-4-1 대형 구축.
 - 이대일과 3자 패스를 활용해 공격 진입로 확보.
 - 2024년 K리그1 최고 수확이었던 양민혁.
 - 수비 시 4-4-2 포진 유지.

김천상무

KEY FEATURES 영상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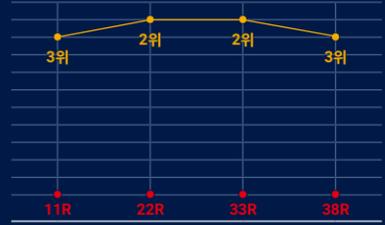
SUMMARY



상무는 K리그1에서 고전한다는 공식을 깨뜨렸다. 정정용 감독과 젊은 병사들이 만나 역대 최고 성적을 이룩했다. 압박 강도가 리그 2위였다.

감독 정정용			
생년월일 1969. 04. 01.			
정정용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8	9	11
통산	63	45	56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8승 9무 11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강현무	4	352	7	7	
	김동현	17	1,694	19	6	
	김준홍	17	1,659	12	15	
	정명제	1	101	3	0	
DF	김강산	11	882	0	0	
	김민덕	20	1,177	0	0	
	김재우	5	452	0	0	
	김태현	13	1,077	2	0	
	박대원	14	839	0	1	
	박민우	15	1,385	0	1	
	박수일	26	2,052	0	1	
	박승욱	32	3,032	0	2	
	박찬용	13	1,156	0	0	
	윤인표	4	123	0	1	
	윤종규	9	521	0	0	
	이진지	10	232	0	0	
	조준현	2	33	0	0	
	조현택	12	597	0	0	
	MF	강현목	15	1,212	2	1
		김동현	13	808	0	1
		김민준	12	459	1	1
		김봉수	38	3,768	0	1
		김준호	3	49	0	0
김진규		15	1,398	0	2	
김현성		14	943	5	1	
맹성우		11	588	1	0	
서민우		25	2,007	3	0	
원두재		12	1,083	1	0	
이동경		18	1,391	5	1	
이상민		3	70	0	1	
이상원		8	480	1	0	
FW		구본칠	3	117	0	0
		김준원	5	236	0	2
	김대원	28	1,779	5	8	
	김승선	12	587	2	1	
	김찬	3	51	0	0	
	모재현	25	1,515	4	3	
	박상현	17	1,090	4	0	
	원기중	1	28	0	0	
	유강현	27	1,328	6	1	
	이동준	8	342	1	0	
이영준	8	483	1	0		
이중민	15	673	3	0		
정기인	15	1,131	2	1		
최기운	22	602	4	0		
추상훈	7	221	0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3세 7th	76회(3rd)	0회	1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유강현	6골	14회	7.0골
김대원	5골	14회	4.5골
이동경	5골	22회	5.6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김대원	8회	47회	116회
모재현	3회	20회	88회
김진규	2회	13회	33회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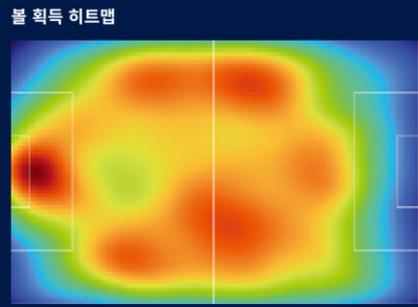
점유율

50.0%(5th)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2.0% 4th	50.9% 5th	46.4% 12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475회 9th	85.0% 8th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1% 중거리 35% 단거리 54%	전진 패스 42% 백 패스 22% 횡 패스 36%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0.5 2nd	32.9m 6th
활동량	스프린트
115.2km 6th	209.4회 1st

TEAM STATS

득점 분류

4골 (7%)	11골 (20%)	9골 (16%)
	13골 (24%)	
박스 밖 10골 (18%)		

PK	자책골	총 득점
6골 (11%)	2골 (4%)	55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9.8골 2nd	52.2골 3rd	39.2골 10th	40.0골 11th

시간대별 득점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434개 1st	3.2회 7th	9.2% 1st

KEY FEATURES

- 공격 시퀀스에서 적진 포켓 적극 활용.
- 상대 박스에 최대 7명까지 배치하며 공격성 과시.
- 수비 시 4-4-2 형태 형성하며 상대 측면으로 유도.
- 턴 오버 발생 시 수비 전환 문제점 노출.

FC서울

KEY FEATURES 영상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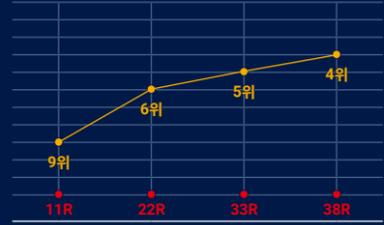
SUMMARY



김기동 버전의 서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졌다. 시즌 초반엔 부침이 적었지만, 케도에 오르면서 모두를 괴롭혔다. 패스 횟수가 리그 3위라는 지표도 눈길을 끈다.

감독 김기동			
생년월일 1972. 01. 12.			
김기동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6	10	12
통산	89	60	60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6승 10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4-4-1-1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강현무	13	1,313	12	7	
	백종범	16	1,634	16	6	
	최철원	8	819	11	3	
	황성민	1	104	3	0	
DF	강상우	35	3,192	1	3	
	권완규	26	2,493	2	0	
	김주성	25	2,359	0	0	
	김진야	15	471	0	0	
	박성훈	12	1,141	1	0	
	솔라카	3	306	0	0	
	야잔	12	1,208	0	0	
	윤종규	12	840	0	1	
	이태석	13	902	0	1	
	최준	36	3,495	1	4	
	황현수	3	241	0	0	
	MF	기성용	20	1,838	2	5
		류재문	25	1,706	1	1
		백상훈	3	83	0	0
		시계호	2	73	0	0
이승모		26	1,984	3	1	
이승준		8	267	0	0	
팔로세비치		21	1,038	1	3	
한승규		15	1,213	1	4	
황도윤		9	779	0	0	
FW		강성진	22	1,002	2	1
	강주혁	10	388	1	1	
	김경민	2	65	0	0	
	김신진	9	254	1	0	
	루카스	12	983	2	0	
	링크드	26	2,182	6	3	
	박동진	16	698	1	2	
	손승범	7	246	1	0	
	윌리안	24	1,035	5	0	
	일류첸코	36	2,753	14	5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7세 5th	84회(1st)	0회	1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일류첸코	14골	30회	11.2골
링크드	6골	21회	5.2골
윌리안	5골	8회	2.8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기성용	5회	18회	101회
일류첸코	4회	29회	8회
최준	4회	26회	126회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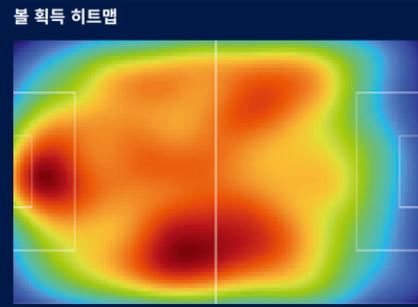
점유율

51.4%(4th)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1.4% 5th	52.1% 3rd	48.6% 7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514회 3rd	84.6% 9th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0% 중거리 38% 단거리 52%	전진 패스 39% 백 패스 22% 횡 패스 39%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1.1 4th	30.0m 10th
활동량	스프린트
115.2km 8th	202.5회 4th

TEAM STATS

득점 분류

7골 (13%)	16골 (29%)	5골 (9%)
	16골 (29%)	
박스 밖 9골 (16%)		

PK	자책골	총 득점
2골 (4%)	0골 (0%)	55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4.4골 7th	50.8골 4th	38.9골 11th	40.9골 10th

시간대별 득점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365개 6th	3.5회 4th	8.0% 4th

KEY FEATURES

- 세트피스에서 날카로웠던 링크드.
- 동료 위치에 따라 밸런스 조정하는 서울 미드필더진.
- 수비 시 4-4-2로 출발했다가 날개에서 압박하며 비대칭 4-3-3으로 전환.
- 중원에서 대인 방어 실패 시 위기 맞는 상황.

수원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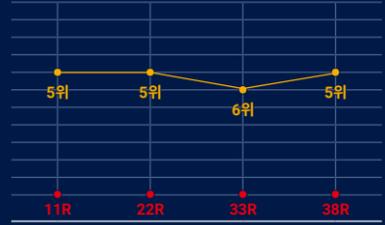
SUMMARY



젊은 사령탑과 열정 있는 선수들이 축적을 남겼다. 공격 지역 점유율이 리그 3위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들이 얼마나 패기 있게 게임에 접근했는지가 드러난다.

감독 김은중			
생년월일 1979. 04. 08.			
김은중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5	8	15
통산	15	8	15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5승 8무 15패



주요 포메이션 | 4-3-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노동건	3	299	8	0
	안준수	34	3,414	45	8
	정민기	1	101	4	2
DF	곽윤호	3	133	0	0
	권경원	21	2,011	1	0
	김주엽	19	752	1	1
	김태한	28	2,307	2	0
	박철우	36	2,934	1	2
	소타	1	39	0	0
	아르한	2	7	0	0
	이용	30	2,849	1	1
	이현용	5	463	0	0
	장영우	26	1,397	1	0
	잭슨	22	1,613	1	0
	정동호	2	159	0	0
	최규백	23	1,959	1	0
	MF	강상윤	29	1,794	3
노경호		13	703	0	0
손준호		12	706	1	1
윤빛가람		36	3,102	1	2
이재원		32	2,572	1	4
정승원		38	3,161	11	6
조준현		4	116	0	0
트린다지		3	112	0	0
한교원		10	379	0	1
황승민		2	28	0	0
FW	강민성	1	7	0	0
	안데르손	38	3,386	7	13
	안병준	6	175	0	1
	이광형	6	185	0	0
	이승우	18	1,172	10	2
	이준석	7	300	0	0
	정승배	10	346	1	0
	정재민	12	440	2	0
	지동원	36	2,049	6	3
	하정우	4	85	1	0
	호세	11	667	0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3세	56회(11th)	1회	1회
7th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정승원	11골	23회	6.1골
이승우	10골	23회	7.7골
안데르손	7골	25회	8.8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안데르손	13회	62회	116회
정승원	6회	30회	109회
이재원	4회	12회	1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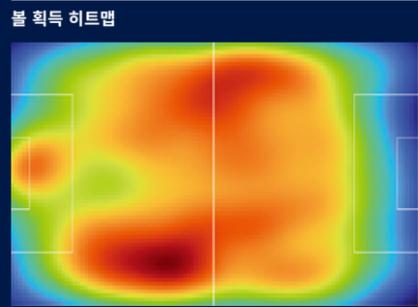
AVERAGES

점유율: 50.0%(6th)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2.1% (3rd)	47.7% (9th)	47.7% (9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495회 (5th)	82.9% (12th)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2%, 중거리 36%, 단거리 52%	전진 패스 41%, 백 패스 23%, 횡 패스 36%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2.8 (9th)	31.3m (8th)
활동량	스프린트
113.3km (11th)	192.6회 (7th)

TEAM STATS

득점 분류

9골 (17%)	8골 (15%)	10골 (19%)
17골 (31%)		
박스 밖 6골 (11%)		

PK	자책골	총 득점
3골 (6%)	1골 (2%)	54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5.4골 (5th)	49.6골 (6th)	44.7골 (6th)	51.5골 (5th)

시간대별 득점

0-15	15-30	30-45	45+	45-60	60-75	75-90	90+
5	3	7	4	9	8	9	9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415개 (2nd)	3.5회 (5th)	9.2% (2nd)

KEY FEATURES

1. 압도적 xT수치를 기록한 'K리그1 도움왕' 안데르손.
2. 후방 빌드업 시 GK를 활용해 수적 우위 확보.
3. 수비 시 5-2-3이 일반적.
4. Back 5 활용해 상대 공격수를 끈질기게 압박.

포항스틸러스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뚜렷한 축구를 보여줬다. 패스 성공률 리그 1위, 패스 횟수 리그 2위. 포항은 그동안의 철길 걷기를 유지했다. 이호재·홍윤상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감독 박태하			
생년월일 1968. 05. 29.			
박태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4	11	13
통산	14	11	13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4승 11무 13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윤평국	8	786	10	1
	이승환	1	104	2	0
	황인재	29	2,933	38	7
DF	김윤성	4	184	0	0
	민상기	5	503	0	0
	박찬용	6	609	1	1
	신광훈	28	2,499	0	0
	아스프로	8	684	0	0
	어정원	28	1,955	1	2
	안델손	38	3,665	4	2
	이규백	6	468	0	0
	이동협	1	61	0	0
	이동희	23	2,224	0	0
	이태석	12	728	1	2
	전민광	32	3,218	2	1
	조성준	6	225	0	0
	최현용	3	77	0	0
MF	김규형	2	55	0	0
	김동진	18	723	1	0
	김종우	25	1,257	2	1
	김준호	1	56	0	0
	오베르단	35	3,307	3	2
	윤민호	17	741	1	1
	윤석주	2	45	0	0
	한찬희	30	1,588	0	0
	황서용	1	9	0	0
	FW	강현제	7	215	0
김명준		2	91	0	0
김인성		28	1,441	2	1
백성동		35	1,773	2	0
안재준		8	440	1	1
이규민		1	46	0	0
이호재		27	1,451	9	5
정재희		36	1,878	8	3
조르지		34	2,174	4	3
허용준		23	1,349	3	3
홍윤상		33	2,283	6	2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4세	58회(10th)	3회	3회
6th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이호재	9골	21회	6.9골
정재희	8골	15회	3.8골
홍윤상	6골	17회	8.2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이호재	5회	13회	14회
정재희	3회	25회	98회
조르지	3회	13회	2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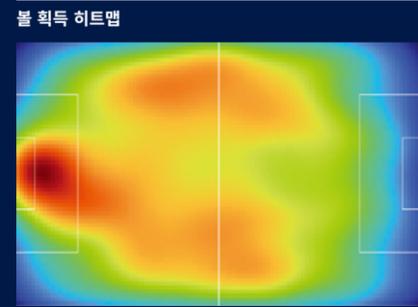
AVERAGES

점유율: 53.3%(3rd)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0.5% (6th)	50.9% (6th)	52.8% (4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524회 (2nd)	88.7% (1st)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1%, 중거리 36%, 단거리 53%	전진 패스 40%, 백 패스 23%, 횡 패스 37%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2.2 (7th)	33.4m (4th)
활동량	스프린트
113.8km (9th)	201.7회 (5th)

TEAM STATS

득점 분류

3골 (6%)	9골 (17%)	11골 (21%)
14골 (26%)		
박스 밖 9골 (17%)		

PK	자책골	총 득점
5골 (9%)	2골 (4%)	53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5.3골 (6th)	50.1골 (5th)	40.2골 (9th)	41.9골 (9th)

시간대별 득점

0-15	15-30	30-45	45+	45-60	60-75	75-90	90+
7	4	5	1	10	7	10	9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356개 (10th)	4.0회 (2nd)	7.9% (10th)

KEY FEATURES

1. 공격 시 안델손을 전진시킨 3-2-5 대형.
2. 파괴적 공격력 뽐낸 이호재·정재희 듀오.
3. 수비 시 4-4-2 포메이션 확보.
4. 수비 전환 시 재압박 걸며 볼 소유권 회복 시도.

제주유나이티드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김학범 감독의 첫 시즌.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는 경향이 짙었다. 한 가지 강점이려면 크게 꺾이지 않았다. 비슷한 성적을 한 해 내내 유지했다.

감독	김학범
생년월일	1960. 03. 01.
감독법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5 4 19
통산	133 88 105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5승 4무 19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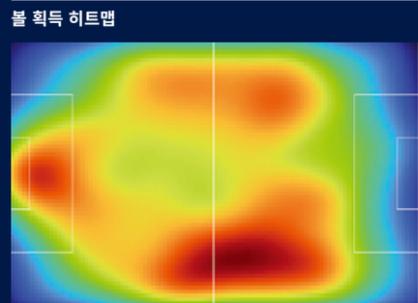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동준	31	3,157	43	9
GK	안찬기	7	694	11	2
DF	김태환	32	2,490	2	1
DF	송주훈	27	2,597	1	0
DF	안태현	33	3,244	4	0
DF	연제운	16	1,530	0	0
DF	이주용	16	1,373	1	0
DF	임창우	24	1,996	1	0
DF	임채민	18	1,636	0	0
DF	전성진	9	174	0	0
DF	정은	23	2,252	0	1
DF	조인정	2	40	0	0
DF	홍재석	8	169	0	0
DF	홍준호	17	637	1	0
MF	구자철	3	83	0	0
MF	김건웅	18	1,271	0	0
MF	김재민	6	96	0	0
MF	김정민	20	1,136	0	0
MF	남태희	8	505	0	3
MF	이탈로	37	3,206	3	1
MF	최영준	12	811	0	0
MF	카이나	18	1,036	1	0
MF	한중무	31	1,491	2	1
MF	헤이스	28	1,867	4	2
FW	갈레고	16	954	1	1
FW	김승섭	8	386	0	0
FW	김주승	9	483	3	1
FW	박주승	1	35	0	0
FW	박주영	6	178	0	0
FW	백승현	5	247	0	1
FW	서진수	38	2,614	3	3
FW	여홍규	11	438	2	0
FW	유리 조나탄	28	2,190	7	2
FW	제갈재민	3	73	0	0
FW	지상욱	1	48	0	0
FW	진성욱	16	784	2	0
FW	탈레스	8	318	0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6세	63회(8th)	2회	3회
2nd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유리 조나탄	7골	30회	11.5골
헤이스	4골	18회	5.3골
안태현	4골	6회	3.2골
서진수	3회	41회	77회
남태희	3회	11회	21회
헤이스	2회	27회	102회

AVERAGES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1.7	30.2m
5th	9th
활동량	스프린트
115.6km	208.3회
5th	3rd

TEAM STATS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383개	2.8회	8.0%
4th	11th	9th

KEY FEATURES

- 공격 시 3-2-5 형태.
- 공격 전환 시 순간적 콤비네이션으로 상대 위협.
- 중원에서 유기적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
- 수비 시 미들 블록에서 4-2-3-1 설계.

대전하나시티즌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황선홍 감독 부임 후 막판 대만전에 성공해 8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생존에 사활을 걸어야했을 만큼 절박한 시간을 보낸 까닭에, 수 치상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감독	황선홍
생년월일	1968. 07. 14.
황선홍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9 7 6
통산	179 112 122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2승 12무 14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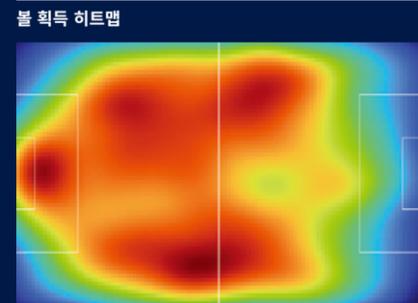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이준서	3	300	5	0
GK	이창근	35	3,537	42	9
DF	강윤성	19	1,560	0	0
DF	김민우	15	1,374	0	1
DF	김재우	10	449	0	0
DF	김현우	5	393	1	1
DF	노홍철	26	2,479	1	1
DF	박종서	3	153	0	0
DF	박진성	1	35	0	0
DF	배서준	11	706	0	0
DF	아론	11	695	0	1
DF	안토	19	1,552	0	0
DF	오재석	26	2,246	2	1
DF	이상민	21	1,243	0	1
DF	이성민	10	789	0	0
DF	이준서	29	2,427	0	1
DF	이준서	3	158	0	0
DF	이준서	5	237	1	0
DF	이준서	6	452	0	0
MF	김중범	18	1,324	4	3
MF	김현서	10	422	0	1
MF	김현서	13	672	1	0
MF	김현서	13	1,237	0	1
MF	김현서	19	909	1	3
MF	이동원	11	429	0	0
MF	이순규	26	2,151	0	0
MF	이순규	8	642	1	0
MF	이현식	5	388	0	1
MF	임덕규	23	1,314	1	0
MF	주세훈	22	1,662	1	0
MF	켈빈	5	353	1	0
FW	김민현	7	399	0	0
FW	구태	10	519	2	0
FW	김승대	26	1,723	2	3
FW	김인규	25	1,552	2	0
FW	레안드로	15	966	2	2
FW	마사	15	1,119	6	3
FW	박정인	6	298	1	0
FW	송창성	10	336	1	0
FW	신상진	6	344	0	0
FW	유신우	1	9	0	0
FW	윤라파	16	629	4	0
FW	정우민	1	5	0	0
FW	최건우	12	689	2	0
FW	최건우	15	913	1	2
FW	호사	7	346	1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0세	75회(4th)	2회	2회
10th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마사	6골	15회	5.8골
김준범	4골	10회	2.0골
윤라파	4골	10회	3.1골
도움	3회	11회	14회
김승대	3회	23회	39회
윤도영	3회	12회	33회

AVERAGES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2.1	35.8m
6th	1st
활동량	스프린트
115.2km	189.9회
7th	9th

TEAM STATS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285개	2.9회	6.3%
12th	10th	12th

KEY FEATURES

- 공격 시 스트라이커를 중원으로 내려 변형 4-1-4-1 형성.
- 고립 지역으로 패스가 잦았던 아쉬움.
- 대인 방어를 통해 상대의 킥 유도.
- 볼 소유권 내줄 시 재빠르게 수비 조직 구성.



광주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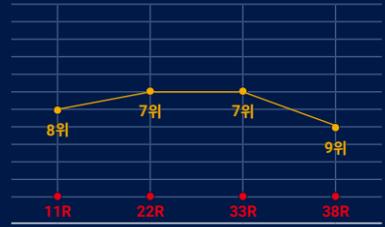
SUMMARY



'정효불'은 색깔을 2024년도 변함없었다. 점유율은 리그 1위였고, 패스 성공률은 리그 11위였다. 공을 최대한 쥐면서 되던 안 되던 용감한 패스를 시도했던 광주였다.

감독 이정효			
생년월일 1975. 07. 23.			
이정효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4	5	19
통산	55	27	34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4승 5무 19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경민	36	3,631	45	8
	이준	2	206	4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김경재	10	594	0	0
	김승우	2	206	0	0
	김진호	36	3,400	0	1
	김한길	19	929	0	1
	변준수	23	1,900	2	1
	브루노	4	173	0	0
	안영규	26	2,109	0	0
	이민기	15	1,224	0	0
	이상기	16	1,192	0	0
	이옴	3	93	0	0
	조성권	6	299	0	0
	포포비치	10	927	0	0
MF	문민서	31	1,470	2	0
	박태준	27	1,832	2	1
	박한빈	1	55	0	0
	염지성	15	1,307	2	3
	오후성	9	435	0	0
	이강현	13	554	1	0
	이희균	29	1,894	5	0
	정호연	36	3,531	0	5
	최경록	34	2,508	3	2
FW	가브리엘	33	2,189	7	5
	김윤호	1	29	0	0
	두현석	18	1,531	0	3
	베카	18	1,105	3	1
	빅틀	9	268	0	0
	신창무	14	454	2	0
	아사니	13	990	3	0
	안혁주	13	490	0	0
	이건희	30	1,764	5	1
	정지용	8	275	0	0
	정지훈	9	303	0	0
	하승운	4	115	0	0
	허을	32	2,282	2	0

AVERAGES



TEAM STATS



KEY FEATURES

- 공격 시 4-1-4-1 형성. 센터백의 전진과 패스가 특이점.
- 역습 시에도 중앙 지향형.
- 수비 시에도 공격과 동일하게 4-1-4-1 전형.
- 수비 전환 시 공장 제압박 걸며 볼 소유권 회복에 중점.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3세 (4th)	61회(9th)	2회	2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슛	기대 득점
가브리엘	7골	19회	6.2골
이건희	5골	16회	6.5골
이희균	5골	14회	4.5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가브리엘	5회	14회	94회
정호연	5회	31회	58회
두현석	3회	18회	92회



전북현대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중도 감독 교체가 발생한 건 물론, 이후에도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강등은 면했으나 승강 PO까지 경험했다. 전북의 컬러를 되찾아야 한다.

감독 김두현			
생년월일 1982. 07. 14.			
김두현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9	7	10
통산	14	9	11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0승 12무 16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정호	6	609	12	0
	김준홍	15	1,522	16	15
	정민기	17	1,753	31	2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구자룡	13	1,044	0	0
	김진수	20	1,813	0	3
	김태현	13	1,301	0	0
	김태환	19	1,810	1	2
	김하준	4	49	0	0
	박진섭	27	2,528	0	0
	박창우	12	503	0	1
	안현범	25	1,929	2	3
	연제운	4	284	0	0
	이재익	17	1,524	1	0
	정우재	11	440	0	0
	정태욱	14	1,125	0	1
	진시은	3	124	0	0
	최철순	5	255	0	0
	페트라섹	1	101	0	0
	홍정호	19	1,695	0	0
MF	권창훈	8	250	2	1
	김진규	14	1,101	4	0
	맹성웅	7	426	0	0
	보아텔고	21	1,335	0	0
	안드리고	15	997	3	2
	유재호	5	193	0	0
	이수민	23	1,911	0	1
	이영재	34	2,475	4	1
	한국영	15	712	0	1
	한국영	20	1,798	0	0
FW	문선민	29	1,505	6	3
	박재용	15	711	1	1
	박주영	3	64	0	0
	비니시우스	4	219	0	1
	송민규	28	2,032	6	6
	에르난데스	14	678	2	2
	이규동	6	176	0	0
	이동준	6	317	1	0
	이승우	12	475	2	4
	이준호	4	135	0	0
	이지훈	1	50	0	0
	전병관	29	1,864	5	1
	전진우	12	476	2	0
	티아고	32	2,099	7	1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3세 (7th)	74회(5th)	2회	5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슛	기대 득점
티아고	7골	18회	7.5골
문선민	6골	15회	5.4골
송민규	6골	10회	5.0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송민규	6회	31회	46회
이승우	4회	7회	7회
문선민	3회	19회	42회

AVERAGES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3세 (7th)	74회(5th)	2회	5회

PLAYER STATS



TEAM STATS



KEY FEATURES

- 공격 시 라이트백을 전진시켜 3-2-5 진영 형성.
- 스위칭으로 상대 혼들며 측면 공략 시도.
- 전방 수비 시엔 강력한 압박.
- '리그 최다 실점' 불명예. 불안정한 디펜스.



대구 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원래 하던 대로 했으나 2024시즌만큼은 크게 고전했다. 어쨌든 세징야를 앞세운 카운터는 날카로웠다. 패스 성공률 2위였다는 건 공격이 매번 목적했다는 방증이다.

감독 박창현

생년월일 | 1966. 06. 08.

박창현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9	9	14
통산	16	17	20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9승 13무 16패



주요 포메이션 | 3-5-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오승훈	27	2,661	38	4
	최영은	12	1,163	14	3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고명석	33	3,245	0	0
	김강산	9	865	0	0
	김진혁	34	3,073	0	0
	김현준	1	54	0	0
	박재현	16	677	2	0
	박진영	25	2,244	0	1
	이원우	3	134	0	0
	장성원	31	2,133	2	0
	카이오	16	1,504	1	0
	홍철	31	2,567	1	2
	황재원	31	3,071	2	2
MF	김정현	1	36	0	0
	박세진	34	2,221	2	1
	박신	15	1,251	1	0
	손승민	2	26	0	0
	요시노	30	2,470	5	3
	이용래	17	429	0	0
	이찬동	8	273	0	0
	고재현	33	2,260	1	0
FW	김영준	9	286	0	1
	바셀루스	17	879	1	0
	박세민	6	224	0	0
	박용희	25	1,331	3	1
	세징야	30	2,666	11	8
	안창민	7	296	0	0
	에드가	30	1,381	5	1
	이탈로	9	482	2	1
	전용준	1	6	0	0
	정재상	18	1,005	2	0
	정치인	14	1,080	3	3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4.4세 12th	66회(7th)	1회	1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세징야	11골	36회	10.8골
에드가	5골	17회	5.7골
요시노	5골	9회	1.8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세징야	8회	48회	194회
요시노	3회	15회	10회
정치인	3회	6회	3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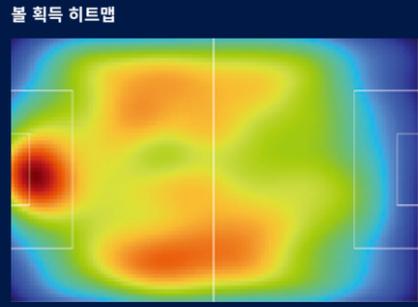
AVERAGES

점유율 **44.4%(12th)**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45.3% 11th	40.8% 11th	53.1% 3rd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418회 12th	87.5% 2nd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3%	전진 패스 45%
중거리 34%	백 패스 21%
단거리 53%	횡 패스 34%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3.2 10th	33.4m 5th
활동량	스프린트
113.4km 10th	198.3회 6th

TEAM STATS

득점 분류

12골 (27%)	5골 (11%)	2골 (4%)
박스 밖 10골 (22%)		

PK	자책골	총 득점
3골 (7%)	1골 (2%)	45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2.3골 10th	38.8골 10th	49.0골 4th	53.6골 2nd

시간대별 득점

시간대	득점 수
0-15	3
15-30	5
30-45	4
45+	3
45-60	9
60-75	6
75-90	7
90+	8

슈트 시퀀스	슈트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395개 3rd	2.8회 12th	8.4% 3rd

KEY FEATURES

- 공격 상황에서 타깃맨 심분 활용.
- 2024년도 공격의 핵심이었던 세징야.
- 공격권 획득 시 제 빠른 카운터가 특징.
- 수비 시 5-4-1 외형.



인천 유나이티드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 무고사가 득점왕에 오르며 분전했으나 팀 퍼포먼스가 최악이었다. 압박 강도 리그 12위는 인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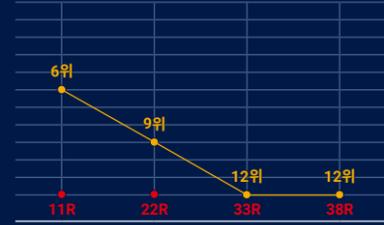
감독 최영근

생년월일 | 1972. 07. 16.

최영근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4	2	7
통산	4	2	7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9승 12무 17패



주요 포메이션 | 3-1-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민성준	11	1,022	16	1
	이범수	28	2,826	33	1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권한진	7	647	0	0
	김건희	28	2,127	0	1
	김동민	22	1,474	1	0
	김연수	16	1,440	0	1
	김준엽	14	968	0	0
	델브리지	16	1,234	1	0
	민경현	17	1,127	0	0
	오반석	16	1,321	0	0
	요니치	29	2,727	1	0
	정동윤	33	2,710	0	1
	최우진	26	1,715	0	4
홍시후	24	1,553	1	1	
MF	김도혁	28	2,171	3	0
	김세훈	3	64	0	0
	김현서	1	42	0	0
	문지환	23	1,504	1	1
	신진호	18	1,465	0	3
	음포쿠	28	1,542	1	0
	이명주	27	2,269	0	1
	김민석	5	164	0	0
FW	김보섭	23	1,266	1	3
	김성민	26	1,145	1	0
	무고사	38	3,122	15	1
	박승호	25	1,557	2	2
	백민규	7	215	0	0
	송시우	3	77	0	0
	이종욱	2	115	0	0
	제르소	27	2,104	7	4
	지언화	6	136	1	0
	천성훈	10	373	0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5세 3rd	51회(12th)	0회	3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무고사	15골	37회	13.8골
제르소	7골	23회	7.7골
김도혁	3골	7회	2.3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제르소	5회	33회	78회
최우진	4회	28회	100회
김보섭	3회	18회	3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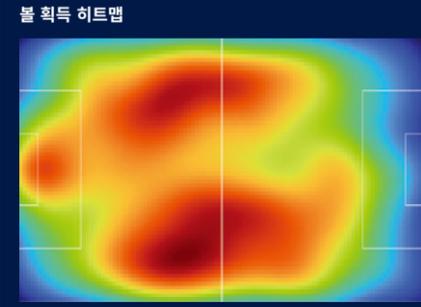
AVERAGES

점유율 **47.6%(9th)**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48.5% 8th	48.6% 8th	49.5% 6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492회 6th	86.5% 5th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0%	전진 패스 40%
중거리 33%	백 패스 22%
단거리 56%	횡 패스 38%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4.7 12th	35.5m 2nd
활동량	스프린트
116.1km 4th	178.4회 12th

TEAM STATS

득점 분류

5골 (14%)	7골 (18%)	6골 (16%)
박스 밖 4골 (11%)		

PK	자책골	총 득점
4골 (11%)	2골 (5%)	38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1.5골 11th	42.7골 8th	47.4골 5th	49.9골 6th

시간대별 득점

시간대	득점 수
0-15	0
15-30	2
30-45	6
45+	1
45-60	9
60-75	6
75-90	8
90+	6

슈트 시퀀스	슈트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344개 11th	3.2회 9th	7.3% 11th

KEY FEATURES

- 공격 시 고립지세 반복.
- 15골 쏘며 강등팀 최초 'K리그1 득점왕' 등극한 무고사.
- 3-5-3-2, 5-4-1, 4-4-2 등 적잖은 수비 대형 도입.
- K리그1내 압박 강도(PPDA)가 최하.

FC 안양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K리그2 챔피언. 점유율도, 패스 성공률도 하위권이었으나 성적은 1등이었다. 볼 소유에 중점을 두지 않고 원 터치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대성공.

감독 | 유병훈

생년월일 | 1976. 07. 03.

유병훈 감독 전적

시즌	승	무	패
2024	18	9	9
통산	18	9	9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8승 9무 8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다솔	35	3,529	35	11	
	김성동	5	158	1	1	
DF	김동진	33	2,970	5	3	
	김민호	3	77	0	0	
	김영찬	23	1,778	0	1	
	김하준	11	763	0	0	
	리영직	29	2,571	3	1	
	박종현	25	1,993	0	0	
	변준영	1	5	0	0	
	이창용	25	2,378	0	0	
	이태희	36	3,101	2	2	
	임승겸	9	359	0	0	
	전보민	2	64	0	0	
	주현우	31	2,094	0	2	
	MF	김정현	33	2,736	2	2
		마테우스	36	3,169	7	11
		문성우	17	506	2	0
야치다		7	248	1	0	
이민수		3	105	0	0	
전승민		3	72	0	0	
최규현		23	1,675	1	0	
한가람		8	542	0	0	
홍철범		7	302	1	0	
FW		김은	25	1,321	4	2
	니콜라스	9	409	0	0	
	단레이	19	1,478	4	2	
	박정훈	4	128	0	0	
	안용우	1	52	0	0	
	야고	33	2,187	6	6	
	유정환	13	898	4	1	
	이동현	3	146	0	0	
	이재용	3	108	0	0	
	채현우	26	1,138	3	0	
	최성범	15	755	2	2	
한익권	14	616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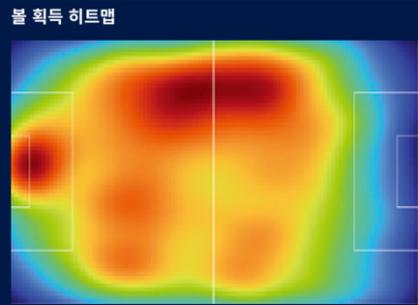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7세 4th	60회(7th)	1회	2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마테우스	7골	39회	4.5골
야고	6골	18회	5.2골
김동진	5골	15회	3.4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마테우스	11회	66회	182회
야고	6회	39회	80회
김동진	3회	21회	100회

AVERAGES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2.0 10th	33.1 m 6th

활동량	스프린트
105.9 km 10th	199.2 회 5th

TEAM STATS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365개 4th	3.1 회 3rd	8.1% 4th

KEY FEATURES

- 공격 시 4-2-3-1 전형 구현.
- 소유권 탈취 시 전방 자원의 빠른 생각 전환으로 역습 전개.
- 수비 시 4-4-2 포메이션.
- 전방부터 강력한 압박으로 수비 시작.

충남 아산 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모두를 놀라게 했던 클럽. 백 스피드를 기반으로 하는 집요한 측면 공략으로 K리그2를 뒤흔들었다. 공격 지역에서 볼을 잡는 시간이 리그 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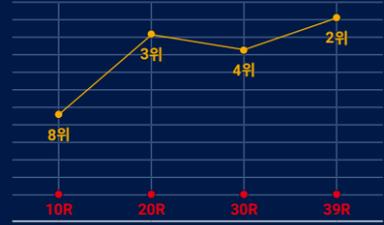
감독 | 김현석

생년월일 | 1967. 05. 05.

김현석 감독 전적

시즌	승	무	패
2024	18	9	11
통산	18	9	11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7승 9무 10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박한근	6	579	7	1	
	신승훈	30	3,006	32	10	
	이영창	1	98	5	0	
DF	강준혁	32	3,005	3	6	
	김수안	5	94	0	0	
	김주성	13	896	2	1	
	박병현	12	1,013	0	1	
	박종민	24	949	0	1	
	배수용	3	188	0	0	
	이은범	31	2,937	1	1	
	이학민	28	1,982	4	0	
	장준영	15	675	0	0	
	최예훈	1	30	0	0	
	최희원	34	3,271	0	0	
	MF	김승호	31	2,846	1	6
		김종국	1	24	0	0
김종석		31	2,625	6	2	
박세직		16	877	0	2	
정마호		19	1,102	3	0	
정세준		11	520	1	1	
최치원		24	1,244	2	0	
황기욱		33	3,240	2	1	
FW		강민규	35	2,069	8	5
		누네즈	4	190	0	0
	데니손	15	647	6	0	
	박대훈	22	1,144	5	5	
	송승민	12	835	0	1	
	안테르손	5	175	0	0	
	안용우	7	212	0	1	
	유동규	7	147	0	1	
	정건우	1	22	0	0	
	주닝요	36	2,931	12	8	
호세	16	847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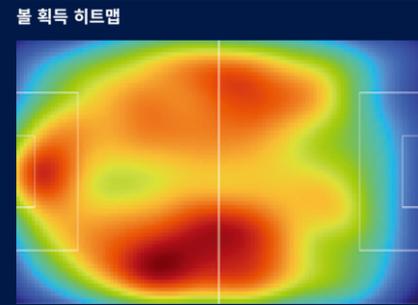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2세 7th	58회(9th)	2회	4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주닝요	12골	32회	14.6골
강민규	8골	18회	7.1골
김종석	6골	19회	4.8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주닝요	8회	29회	99회
강준혁	6회	26회	73회
김승호	6회	41회	95회

AVERAGES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1.8 8th	32.3 m 9th

활동량	스프린트
106.3 km 6th	200.1 회 4th

TEAM STATS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360개 5th	3.2 회 2nd	8.0% 5th

KEY FEATURES

- 공격 시 변형 Back 4 도입.
- 활발한 포지션 체인지로 공격 전개.
- 수비 시 5-2-3 포진 애용.
- 4-5-1 진형 채택 시엔 선수 간 간격 최소화.

서울이랜드 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김도균 감독 체제에서 방향성 확실한 축구를 보여줬다. 공격 지역 점유율은 리그 1위였고, 패스 성공률 또한 리그 2위였다. 압박 강도까지 리그 4위로 대부분 지표에서 준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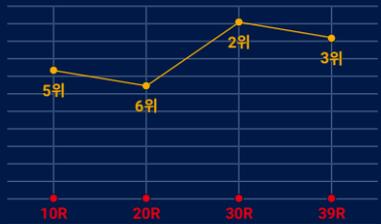
감독 | 김도균

생년월일 | 1977. 01. 13.

김도균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7	8	14
통산	70	39	74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7승 7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문정인	27	2,718	28	10
	윤보상	7	723	12	1
	이기현	2	202	5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김민규	35	3,061	0	0
	김오규	32	2,602	0	0
	박민서	33	3,096	5	7
	신세계	5	243	0	0
	오인표	3	244	0	1
	이인재	18	1,480	1	0
	조동재	10	520	1	0
	차승현	26	1,908	1	3
	채광훈	9	558	0	0
	황태현	6	175	0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MF	김영욱	17	880	0	0
	박창환	30	1,837	0	1
	백지웅	11	931	0	1
	서재민	29	2,754	2	1
	오스마르	28	2,663	7	0
	이상민	1	26	0	0
	정재용	10	501	0	0
	조영광	8	195	0	0
	카즈키	19	1,361	1	3
	피터	10	569	0	2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FW	고우열	9	354	1	0
	김결	12	383	1	1
	김신진	11	591	1	0
	몬타노	13	557	3	1
	박정인	13	680	1	0
	변경준	36	2,070	10	6
	브루노 실바	24	1,891	11	6
	이동률	27	1,223	4	1
	이준석	17	889	2	0
	이코바	17	1,085	6	2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8세	70회(1st)	2회	2회
10th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브루노 실바	11골	26회	9.8골
변경준	10골	17회	7.8골
오스마르	7골	19회	4.4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박민서	7회	42회	206회
브루노 실바	6회	24회	106회
변경준	6회	24회	79회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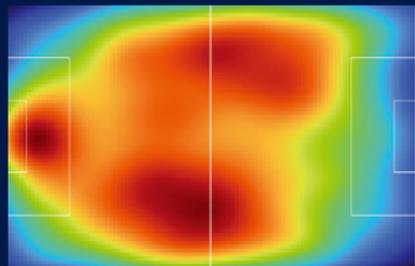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6.0%	53.8%	47.7%
1st	3rd	10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497회	85.8%
4th	2nd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1%	전진 패스 41%
중거리 35%	백 패스 21%
단거리 54%	횡 패스 37%

볼 획득 히트맵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0.7	31.3m
4th	11th

활동량	스프린트
107.5km	207.5회
3rd	1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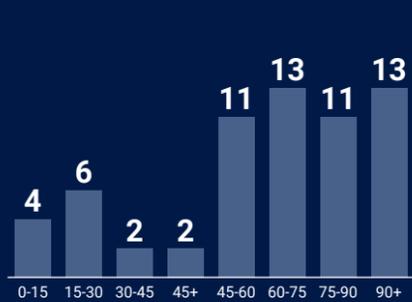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3골(5%)	1골(2%)	62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53.5골	53.2골	39.5골	39.0골
1st	3rd	10th	10th

시간대별 득점



슈트 시퀀스	슈트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409개	3.1회	9.0%
2nd	5th	2nd

KEY FEATURES

- 공격 시 4-2-3-1 진형.
- 팀의 돌격 대장이었던 브루노 실바.
- 측면 크로스가 가장 위협적 공격 패턴.
- 수비 시 4-2-3-1 포진 채택.

전남드래곤즈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조작적으로 끈끈한 플레이를 보였다. 최후방 수비와 최전방 공격 간 거리가 리그 2위로 팀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 발디비아는 2024년도 전남 최고의 선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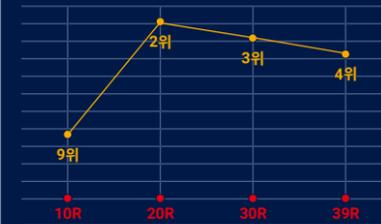
감독 | 이장관

생년월일 | 1974. 07. 04.

이장관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6	11	11
통산	34	28	35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6승 9무 11패



주요 포메이션 | 4-1-4-1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류원우	18	1,821	25	7
	조성빈	1	103	2	0
	최봉진	17	1,733	23	4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고태원	19	1,441	0	0
	김동욱	20	1,547	1	2
	김예성	32	2,940	0	3
	김용환	22	1,930	0	1
	김종필	20	1,141	0	0
	김주현	11	759	0	0
	신일수	7	457	0	0
	알리클로프	8	615	0	1
	여승원	13	578	0	0
	유지하	7	619	0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MF	박태용	31	1,747	3	5
	유태현	11	876	0	0
	윤재석	13	770	3	0
	이석현	16	736	0	0
	이후권	6	207	0	0
	전우상	1	37	1	0
	조재훈	13	444	0	2
	조지훈	32	2,811	3	1
	최원철	18	1,736	1	1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FW	김건오	18	901	0	1
	김종민	23	1,772	12	4
	노건우	19	1,206	1	3
	몬타노	17	790	3	5
	발디비아	33	2,919	12	5
	브루노	8	332	1	0
	손건호	1	28	0	0
	이성운	2	55	0	0
	이창훈	6	350	0	1
	임찬을	19	1,034	2	4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9세	58회(9th)	2회	2회
2nd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발디비아	12골	29회	9.4골
김종민	12골	19회	8.6골
하남	9골	23회	5.6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몬타노	5회	13회	28회
발디비아	4회	36회	224회
김종민	4회	12회	13회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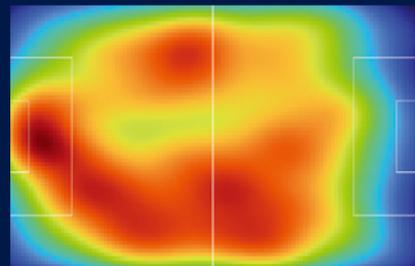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2.0%	52.7%	58.4%
6th	4th	1st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462회	83.5%
7th	7th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4%	전진 패스 44%
중거리 35%	백 패스 23%
단거리 52%	횡 패스 33%

볼 획득 히트맵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1.8	35.9m
9th	2nd

활동량	스프린트
106.3km	180.3회
7th	13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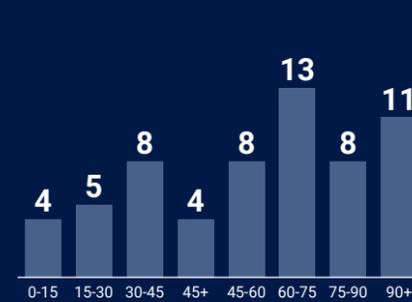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6골(10%)	0골(0%)	61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3.5골	48.0골	47.7골	49.2골
6th	5th	3rd	4th

시간대별 득점



슈트 시퀀스	슈트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334개	3.0회	7.2%
8th	8th	9th

KEY FEATURES

- 공격 시 4-1-4-1 진영 활용.
- 공중볼 및 세컨볼 경합에 힘을 주며 전진 시도.
- 상대 지역에서 두드러졌던 플라카.
- 수비 시 5-4-1 포진 설정.

부산아이파크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패스 횟수와 패스 성공률 지표에서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도 리그 3위였다. 조성환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가 잘 드러났다. 2025년이 더 기대되는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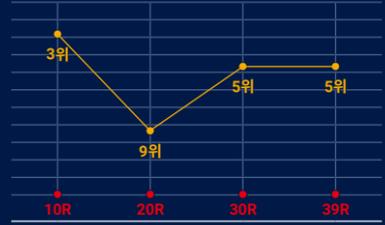
감독 | 조성환

생년월일 | 1970. 10. 16.

조성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9	4	4
통산	120	94	107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6승 8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구상민	30	2,980	38	7
	이승규	1	15	0	0
	이기현	2	202	5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김륜성	10	923	0	3
	박세진	12	451	0	0
	알리클로프	4	120	0	0
	원태량	2	64	0	0
	이정	2	90	0	1
	이한도	34	3,422	2	0
	이현규	3	181	0	0
	조위제	11	1,048	1	0
	황준호	18	844	0	0

M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MF	강지훈	17	1,485	0	1
	김희승	18	1,498	1	0
	성호영	25	2,271	1	0
	손휘	14	783	3	0
	유혜이	14	988	1	1
	이동수	30	2,631	5	0
	이승기	10	370	0	1
	임민혁	36	3,172	5	3
	천지현	27	1,542	1	0
	페신	34	2,864	11	5
허승찬	18	484	0	0	

FW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FW	곽승조	3	36	0	0
	권성윤	22	1,432	1	4
	김도현	14	365	0	0
	김찬	3	253	3	0
	라마스	36	3,516	9	9
	로페즈	14	1,138	0	2
	안병준	12	432	0	1
	올라파	13	800	4	1
	이동훈	7	128	0	0
	이상준	28	907	2	0
이준호	15	877	3	1	
최건주	18	1,304	1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4.9세 12th	40회(13th)	2회	1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페신	11골	24회	8.5골
라마스	9골	35회	9.1골
임민혁	5골	10회	2.2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라마스	9회	61회	127회
페신	5회	47회	28회
권성윤	4회	10회	3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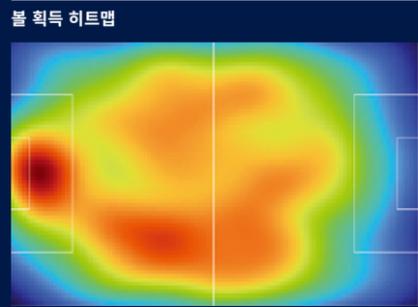
AVERAGES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1.7% 7th	54.7% 2nd	55.2% 2nd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533회 1st	85.8% 1st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0% 중거리 33% 단거리 57%	전진 패스 42% 백 패스 22% 횡 패스 36%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0.8 5th	33.8m 4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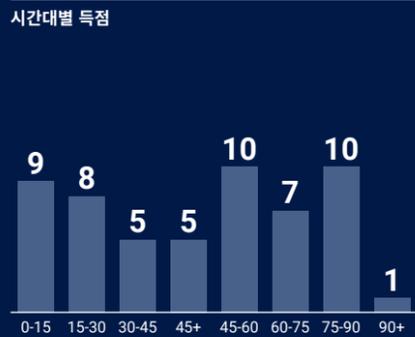
활동량	스프린트
107.9km 2nd	185.6회 11th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6골(11%)	1골(2%)	55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50.4골 3rd	57.3골 1st	42.1골 8th	46.8골 6th



슈트 시퀀스	슈트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408개 3rd	3.8회 1st	8.9% 3rd

KEY FEATURES

- 공격 시 3-4-3 포메이션 도입.
- 부산 공격 첨병이었던 페신·라마스 콤비.
- 수비 시 5-4-1 골격 선호.
- 중원에서 기다리다가 볼 투입 시 압박 걸기.

수원삼성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시즌 중도에 사령탑이 바뀌었다. 변성환 감독 부임 후 정체성이 확실한 축구를 펼쳤다. 그 결과 점유율 리그 1위, 압박 강도 리그 2위, 패스 횟수 및 성공률 리그 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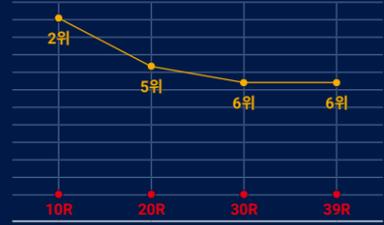
감독 | 변성환

생년월일 | 1979. 12. 22.

변성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9	10	3
통산	9	10	3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5승 11무 10패



주요 포메이션 | 4-3-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박지민	9	851	11	0
	양형모	28	2,765	23	8
	조성훈	1	52	1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고종현	1	97	0	0
	민상기	1	7	0	0
	박대원	7	642	0	0
	배서준	16	694	1	2
	백동규	16	1,297	0	0
	손호준	3	123	0	0
	이건희	1	10	0	0
	이기제	21	1,951	2	0
	이상민	16	1,081	1	2
	이시영	31	3,120	1	1
	장석환	16	1,230	0	0
	장호익	13	883	0	0
	조윤성	26	2,368	2	0
	최지욱	1	63	0	0
	한호강	21	2,042	2	0
황인택	3	110	0	0	

MF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MF	강현욱	11	692	0	0
	김보경	14	686	1	0
	김상준	27	1,444	2	1
	명준재	3	60	0	0
	박상혁	3	82	0	0
	유재호	17	930	0	0
	이재욱	4	294	0	0
	이동성	21	1,319	1	3
	최성근	2	76	0	0
	카즈키	11	805	0	2
	툰가라	16	1,088	0	0
	피터	14	898	1	3
	홍원진	17	1,566	0	0

FW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FW	김우찬	26	1,888	2	1
	김지호	11	620	4	2
	김현	20	1,161	5	6
	류승완	1	32	0	0
	마일랏치	10	609	2	1
	물리치	35	1,972	10	1
	박승수	14	589	1	2
	손석용	23	1,175	2	3
	이규동	14	803	2	1
	전진우	16	958	1	1
파울리노	12	1,016	1	3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4.6세 13th	60회(7th)	1회	5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물리치	10골	32회	10.2골
김현	5골	15회	4.1골
김지호	4골	4회	2.0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김현	6회	22회	7회
손석용	3회	19회	39회
이종성	3회	10회	3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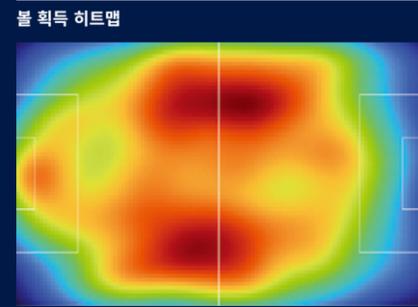
AVERAGES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5.3% 2nd	58.0% 1st	51.0% 7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499회 3rd	85.8% 3rd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1% 중거리 39% 단거리 50%	전진 패스 41% 백 패스 21% 횡 패스 38%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9.8 2nd	32.8m 8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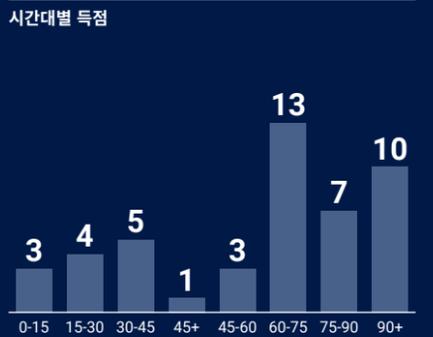
활동량	스프린트
108.3km 1st	196.0회 7th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1골(2%)	2골(4%)	46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51.0골 2nd	53.2골 4th	36.4골 12th	36.9골 12th



슈트 시퀀스	슈트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440개 1st	3.0회 7th	9.5% 1st

KEY FEATURES

- 공격 시 4-1-4-1 형태 애용.
- 신속한 스위칭으로 반대편 너른 공간 활용.
- 수비 시 4-4-2 형태 채택.
- 수원식 4-4-2는 수동성과 안정성에 중점.

김포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고정운 감독의 축구는 목적성이 뚜렷했다. 점유율, 압박 강도,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등이 모두 리그 끝까지 안정적인 성적은 '중위권' 루이스를 앞세운 역습이 매력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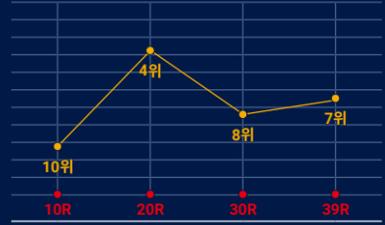
감독 | 고정운

생년월일 | 1966. 06. 27.

고정운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4	12	10
통산	53	44	54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4승 12무 10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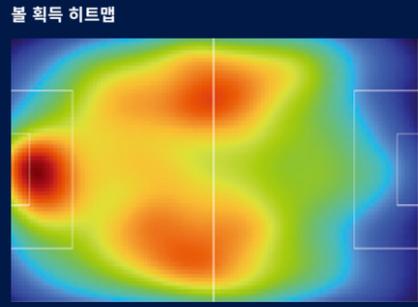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손정현	33	3,309	34	12
GK	이상훈	3	305	7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김민호	22	1,518	1	2
DF	김성주	20	613	0	1
DF	김원균	14	1,010	1	1
DF	김종민	5	187	0	0
DF	김채운	3	47	0	0
DF	김현훈	13	1,263	0	0
DF	박경록	35	3,369	3	2
DF	안재민	15	1,227	0	0
DF	이용혁	20	1,807	2	1
DF	이종현	15	981	0	0
DF	이환희	13	527	0	2
DF	임도훈	13	894	0	0
DF	정강민	10	382	0	1
DF	정한철	15	793	2	0
DF	채프먼	18	1,579	0	0
MF	권순호	8	327	0	0
MF	권승비	1	49	0	0
MF	김준형	12	712	0	0
MF	서보민	21	767	0	0
MF	서재민	28	2,658	0	2
MF	이강연	13	795	0	1
MF	임준우	11	627	0	0
MF	장윤호	23	1,747	2	1
MF	최재훈	35	3,192	2	2
MF	허동호	7	204	0	0
FW	김경준	8	449	1	0
FW	김희성	1	30	0	0
FW	루이스	34	3,093	15	3
FW	브루노	29	1,696	3	1
FW	이현규	16	430	0	1
FW	이현일	7	445	1	0
FW	제갈재민	8	171	0	0
FW	플라나	35	2,798	9	5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9세	63회(3rd)	1회	1회
2nd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루이스	15골	37회	12.7골
플라나	9골	35회	6.3골
브루노	3골	16회	6.2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플라나	5회	49회	171회
루이스	3회	32회	73회
박경록	2회	8회	13회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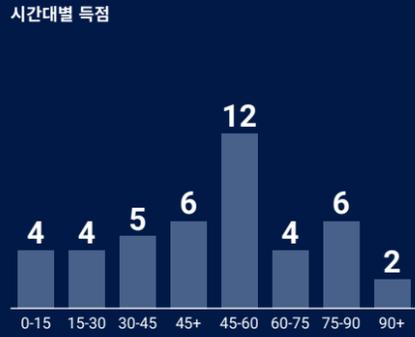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3.7	31.5m
13th	10th
활동량	스프린트
106.4km	192.7회
5th	9th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2골(5%)	1골(2%)	43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0.5골	43.7골	43.5골	45.9골
8th	8th	5th	7th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315개	2.4회	7.1%
10th	13th	10th

KEY FEATURES

1. 공격 시 3-4-3 진영 채택.
2. 외국인 공격수들 활용해 공중볼과 세컨볼 적극 경험.
3. 역습 시에도 날카로웠던 외국인들.
4. 수비 시 5-3-2 형태 유지.

부천FC1995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최후방 수비와 최전방 공격 간 거리가 리그 1위였다. 모든 플레이 어들이 톱풀 뭉쳐 움직였다는 증거다. 외국인 바사니가 홀로 11골 7 도움을 기록, 시즌 내내 맹활약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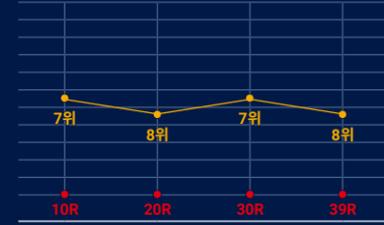
감독 | 이영민

생년월일 | 1973. 12. 20.

이영민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2	13	11
통산	80	65	77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2승 13무 11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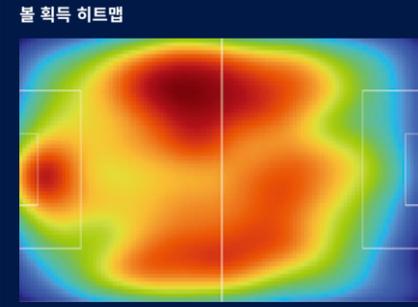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현엽	3	305	4	1
GK	김형근	33	3,335	41	13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김규민	1	101	0	0
DF	김선호	30	2,039	1	1
DF	남손주니어	22	2,013	1	0
DF	박형진	23	1,288	1	0
DF	서명관	21	2,108	0	1
DF	유승현	12	571	0	0
DF	이상혁	19	1,517	0	0
DF	이풍연	1	82	0	0
DF	전인규	20	1,822	0	0
DF	정희웅	8	490	1	1
DF	홍성욱	21	2,055	0	1
MF	김동현	14	581	1	1
MF	박현빈	28	1,915	2	2
MF	송진규	3	121	0	0
MF	이정빈	18	636	4	2
MF	정재용	16	772	2	0
MF	정호진	27	1,757	0	0
MF	최재영	10	866	1	0
MF	카즈	33	3,123	0	1
FW	김규민	10	226	0	0
FW	루페타	31	2,380	7	2
FW	바사니	35	3,062	11	7
FW	박창준	5	238	0	0
FW	박호민	15	359	2	0
FW	안재준	8	343	1	0
FW	윤재운	5	172	0	0
FW	이의형	19	820	2	2
FW	전성수	5	171	1	0
FW	최병찬	31	2,492	3	4
FW	한지호	29	1,599	2	2
FW	황재환	12	543	0	1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6세	63회(3rd)	2회	2회
5th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바사니	11골	36회	9.7골
루페타	7골	27회	10.0골
이정빈	4골	10회	3.9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바사니	6회	22회	135회
최병찬	3회	19회	74회
루페타	3회	10회	22회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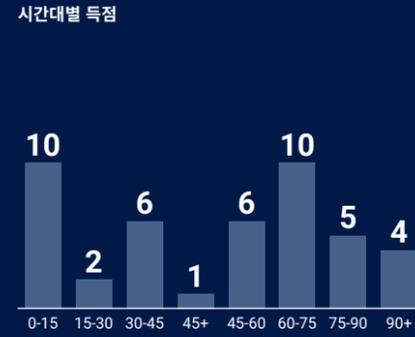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1.7	36.4m
7th	1st
활동량	스프린트
102.7km	195.5회
13th	8th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2골(5%)	1골(2%)	44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2.4골	41.8골	42.3골	38.8골
7th	10th	7th	11th



슛 시퀀스	슛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슛 시퀀스 비율
338개	3.1회	7.7%
7th	6th	6th

KEY FEATURES

1. 공격 시 3-4-3 대형 건축.
2. 적진에서 역량 발산한 바사니.
3. 주요 공격 루트였던 수비 후 재빠른 카운터.
4. 수비 시 5-2-3 형태 대응.

천안시티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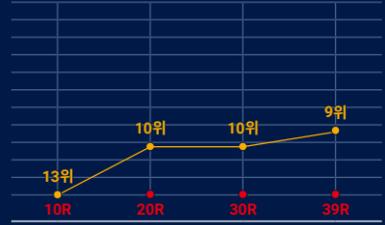
SUMMARY



김태완 감독도 색깔 있는 축구를 만들었다. 점유율을 내주고, 패스를 최소화하며 게임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밀고 올라가는 힘이 좋았다. K리그2 득점왕 모따를 배출했다.

감독	김태완		
생년월일	1971. 06. 01.		
김태완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1	10	15
통산	89	70	109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11승 10무 15패



주요 포메이션 | 4-3-3



충북청주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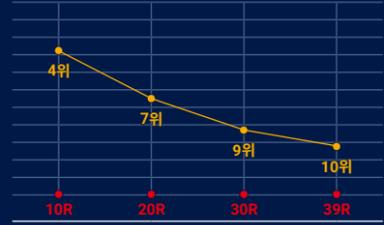
SUMMARY



최윤겸 감독이 시즌 중 지휘봉을 내려놓는 아픔을 겪었다. 그래도 압박 강도 리그 1위라는 분명한 지표를 남긴 충북청주였다. 예년에 비해 수비는 강하지 못했다.

감독	권오규(대행)		
생년월일	1983. 12. 03.		
권오규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	1	3
통산	2	3	5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8승 16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강정목	11	1,129	16	2	
	박주원	12	1,219	17	3	
	제종현	14	1,350	24	1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강영훈	20	2,017	0	0	
	구대영	20	1,683	0	2	
	김운도	3	71	0	0	
	마상훈	16	936	0	0	
	문건호	17	726	2	3	
	박준강	15	1,028	0	2	
	신원호	5	275	0	0	
	오운석	15	1,095	0	1	
	유용현	8	637	0	0	
	이재원	32	3,236	1	1	
	이재원	15	921	0	0	
	MF	김서진	7	638	0	1
		김성주	16	1,088	0	0
김성준		26	1,637	2	3	
명준재		12	505	0	2	
서도협		7	376	0	0	
신형민		28	2,149	0	1	
윤용호		6	269	0	0	
윤재석		16	997	3	1	
이광진		22	1,701	2	2	
이종범		9	501	0	0	
장백규		3	248	0	2	
장성재		24	1,789	2	0	
최상현		11	395	0	0	
툠가라	13	1,302	4	3		
한재훈	7	308	0	1		
FW	김대중	5	177	0	0	
	김린도	13	460	1	1	
	모따	35	3,140	16	5	
	박찬교	4	124	0	0	
	신안결	10	684	0	1	
	에리키	5	314	1	1	
	이지훈	14	1,111	3	1	
	정석화	24	1,598	0	1	
	파울리뉴	18	1,498	9	1	
	허승우	9	406	0	0	

AVERAGES



TEAM STATS



KEY FEATURES

- 공격시 4-3-3 진영 설계.
- 소유권 탈취 이후 역습 집중.
- 수비시 4-2-3-1 포진 형성 후 유기적 맨투맨 대응.
- 공격시 잦은 턴오버 발생.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7.8세 1st	62회(5th)	0회	7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슛	기대 득점
모따	16골	42회	11.3골
파울리뉴	9골	19회	5.0골
툠가라	4골	17회	4.3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모따	4회	12회	13회
김성준	4회	20회	64회
문건호	4회	8회	13회

AVERAGES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2세 7th	70회(1st)	1회	1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슛	기대 득점
윤민호	5골	15회	6.0골
홍원진	3골	10회	1.1골
김명순	3골	9회	2.7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김명순	7회	19회	76회
김선민	3회	20회	11회
장혁진	3회	26회	106회

안산그리너스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임관식 감독에서 이관우 감독으로 사령탑이 바뀐 시즌, 패스 횟수는 리그 2위로 많은 편이었는데, 개선점은 수두룩해 보인다. 의미 있는 지표를 생성해야 한다.

감독 | 이관우
생년월일 | 1978. 02. 25.
이관우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3	5	4
통산	3	5	4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9승 10무 17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이승빈	12	1,155	18	2
	이준희	21	2,068	24	4
	주현성	5	417	6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고태규	27	2,330	0	0
	김기환	7	250	0	0
	김대경	17	828	0	0
	김민성	6	291	0	0
	김영남	30	2,933	2	0
	김응열	2	31	0	0
	김재성	32	2,998	2	0
	김정호	29	2,688	0	0
	이택근	27	1,953	0	4
	장유섭	22	1,759	1	2
	정용희	17	945	0	0
김래우	5	94	0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MF	김진현	26	1,270	3	1
	노경호	18	1,754	3	0
	박준배	24	1,139	4	1
	손재희	9	490	0	1
	심태웅	7	187	0	0
	양세영	23	1,321	3	0
	이지승	32	2,724	2	2
	이지훈	9	357	0	0
	최한솔	34	3,192	3	2
	강수일	21	533	1	0
	강준모	16	502	0	0
	김도윤	33	1,703	5	2
	김범수	27	2,351	2	3
	김우빈	9	681	1	0
	김지한	4	100	0	1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4세 11st	58회(9th)	0회	3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김도윤	5골	18회	4.5골
박준배	4골	5회	2.6골
최한솔	3골	18회	3.2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이택근	4회	15회	45회
김범수	3회	24회	62회
김도윤	2회	13회	20회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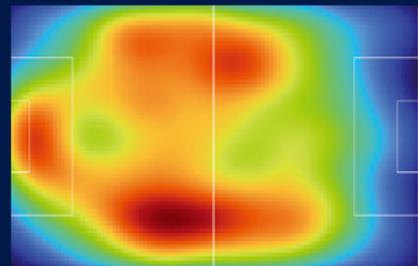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47.4% 10th	49.7% 9th	52.1% 3rd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519회 2nd	84.7% 5th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2%	전진 패스	41%
중거리	34%	백 패스	22%
단거리	55%	횡 패스	37%

볼 획득 히트맵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2.9 11th	29.5m 13th

활동량	스프린트
105.2km 9th	201.9회 3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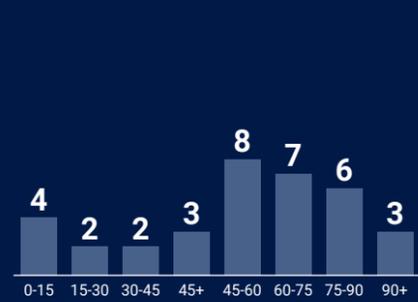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1골(3%)	2골(6%)	35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30.9골 13th	36.1골 12th	42.6골 6th	51.1골 3rd

시간대별 득점



슈트 시퀀스	슈트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290개 12th	3.0회 10th	6.3% 12th

KEY FEATURES

- 공격 시 3-4-3 형태.
- 측면 크로스가 주요 공격 루트.
- 효율성만 따지면 카운터 어택이 주요.
- 수비 시 5-2-3 혹은 5-4-1 대형으로 응수.

경남FC

KEY FEATURES 영상 보기 >



SUMMARY



끝내 색깔을 내지 못한 팀. 최후방 수비와 최전방 공격 간 거리가 리그 12위였다. 상대에게 공간을 쉽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대형이었다는 뜻이다.

감독 | 권우경(대행)
생년월일 | 1981. 05. 30.
권우경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1	5	2
통산	1	5	2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6승 15무 15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고동민	17	1,687	37	2
	김민준	20	1,919	25	3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DF	김진래	14	1,325	0	2
	김형진	31	2,962	2	0
	박원재	29	1,875	0	3
	박재환	21	1,729	0	0
	우주성	32	2,464	2	0
	이광선	2	90	0	0
	이민기	16	1,075	2	0
	이준재	26	1,662	1	0
	이찬욱	15	1,059	1	0
	정현욱	1	12	0	0
	한용수	11	878	0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MF	국진우	2	57	0	0
	김형원	14	528	1	0
	박한빈	6	415	1	1
	송홍민	26	2,241	0	3
	유키야	1	50	0	0
	이강희	31	2,678	0	1
	이민혁	27	1,707	2	2
	이시현	6	337	1	2
	정현철	16	1,165	0	0
	김태윤	3	86	0	0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득점	도움
FW	김태윤	3	86	0	0
	도동현	16	764	3	1
	무셀라	7	225	0	0
	박동진	14	1,104	6	1
	박민서	29	1,997	2	3
	사라이바	12	446	2	2
	서재원	1	49	0	0
	설현진	14	583	0	0
	아라블리	26	1,880	9	1
	엘리오	4	235	0	0
	원기종	8	793	5	1
	웨일스	7	461	1	5
	유중하	5	118	0	0
윤주태	17	828	1	0	
이종연	8	446	1	0	
정충근	4	216	0	0	
조상준	11	558	0	0	
조항기	6	256	1	0	
폰세카	12	560	1	2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9세 9th	53회(12th)	1회	3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아라블리	9골	21회	9.1골
박동진	6골	13회	4.5골
원기종	5골	9회	3.1골

이름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웨일스	5회	9회	36회
박원재	3회	17회	83회
송홍민	3회	20회	110회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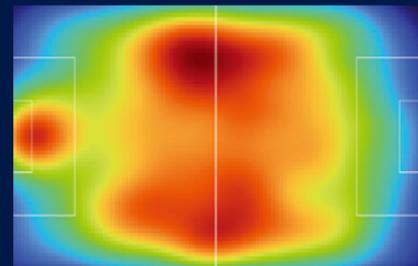


공격 1/3	미드필드 1/3	수비 1/3
52.1% 5th	51.4% 6th	46.0% 11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444회 10th	82.1% 12th

거리별 패스 분포		방향별 패스 분포	
장거리	13%	전진 패스	43%
중거리	36%	백 패스	21%
단거리	51%	횡 패스	36%

볼 획득 히트맵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0.6 3rd	30.9m 12th

활동량	스프린트
104.6km 10th	204.5회 2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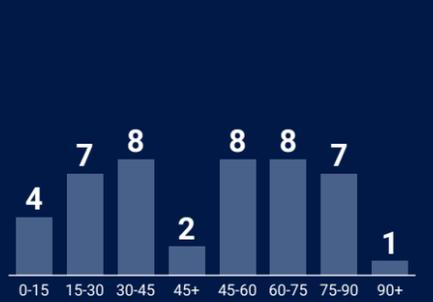
TEAM STATS



PK	자책골	총 득점
5골(11%)	0골(0%)	45골

기대 득점	xGOT	기대 실점	xGOT 허용
47.0골 5th	43.1골 9th	46.7골 4th	53.2골 2rd

시간대별 득점



슈트 시퀀스	슈트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슈트 시퀀스 비율
344개 6th	2.5회 12th	7% 7th

KEY FEATURES

- 공격 시 3-4-3 형태.
- 공격 전환 시 인상적 역습.
- 측면 크로스로 수 차례 득점 성공.
- 수비 시 5-4-1 포메이션 선택.



SUMMARY



역대 최악의 시즌. 후이즈·이중민·박지원 등 몇몇 개인들의 역량은 뛰어났으나 팀 조직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2025년 반등을 위한 독한 준비가 필요하다.

감독 | 전경준

생년월일 | 1973. 09. 10.

전경준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4	0	3	6
통산	32	40	32

성적 추이 | 정규 라운드 5승 11무 20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 수	출장 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유상훈	13	1,311	19	1	
	최필수	23	2,325	47	1	
DF	강의빈	13	1,034	0	0	
	김군일	14	845	0	0	
	김주원	30	2,971	1	0	
	김훈민	18	1,035	1	0	
	박광일	26	2,096	0	1	
	양시후	13	733	1	0	
	유선	5	449	0	0	
	윤영선	13	928	0	0	
	장효준	9	666	1	1	
	정승용	25	2,279	0	3	
	조성욱	10	590	0	0	
	최준영	11	699	0	0	
	MF	국관우	11	467	1	0
		류준선	12	958	0	1
알리바예프		17	1,476	0	1	
양태양		18	1,123	0	0	
오재혁		12	993	0	0	
장영기		8	454	1	0	
정원진		22	1,780	0	2	
한석중		20	1,121	0	0	
FW		가브리엘	6	412	0	1
		구분철	11	623	1	1
	김정환	23	1,163	2	2	
	박지원	33	1,833	4	2	
	신재원	27	1,720	2	5	
	이정협	22	1,201	0	0	
	이준상	22	1,162	1	1	
	이중민	14	933	4	0	
	전성수	3	87	0	0	
	정재윤	3	127	0	0	
	코레아	12	563	0	1	
	크리스	19	829	2	0	
후이즈	32	2,894	12	2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3세 6th	61회(6th)	3회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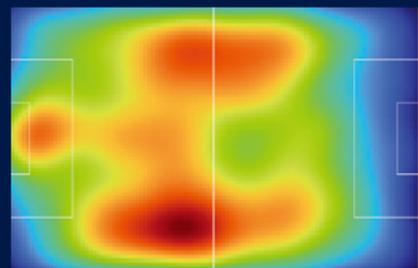
PLAYER STATS

	득점	유효 슈트	기대 득점
후이즈	12골	31회	14.1골
박지원	4골	12회	5.1골
이중민	4골	6회	1.6골
	도움	키 패스	크로스
신재원	5회	16회	106회
정승용	3회	9회	58회
후이즈	2회	16회	17회

AVERAGES



볼 획득 히트맵



압박 강도(PPDA)	최후방 수비-최전방 공격 간 거리
13.0 12th	33.1m 5th
활동량	스프린트
106.4km 4th	189.3회 10th

TEAM STATS



KEY FEATURES

- 공격 시 4-4-2 외형 선택.
- 측면 크로스가 주요 공격 루트.
- 수비 시에도 4-4-2 형태 채택.
- 측면에서 크로스 허용이 잦았던 모습.



2024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4 K리그 기술보고서

발행처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BEPRO11

기획 | K리그 TSG

편집 및 디자인 | 그래픽레시오

인터뷰 및 교정 | 조남기 기자

사진 | FPhotos

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A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2024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4 K리그 기술보고서



K LEAGUE



OHFC
오상헬스케어

OHFC
오상헬스케어

OHFC
오상헬스케어

21